朝鮮日報
夕刊 五日(火)
本紙朝夕刊二十面

故國아잘잇거라

「에」皇帝孤影, 悄然히 「하」港向하야出發

英艦엔터프라이스號御搭乘

「예루살렘」에定住乎

敗軍亡國의悲哀를滿喫

에皇帝船上에서故土를訣別

【지부티四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三日夜佛領소말릴란드總督데베스루르氏官邸에入하야 亡命의第一夜를보내엿는데 四日午後五時半 皇后메넨陛下 皇太子殿下를 御同伴하고 英國巡洋艦엔터프라이스號에搭乘하고 지부티를出港하야 一路팔레스타인, 하이파港으로 向하엿다 阿洲大陸의一角에서 三千年의 王道를 자랑하든 諸王은 敗軍亡國의 悲哀를 滿喫하고 孤影悄然히船上에서 懷抱깁흔山河와 袂別하고 皇帝는 하이파港에 到着하야 陸路로예루살렘市에入하야 近郊코브트派修道院에서 머믈豫定이다

에디오피아皇帝는 亡國의悲哀를滿喫한 面貌로 悄然히말하기를 近代的兵器를 자랑하는 伊太利軍에對抗하야 에디오피아軍은 徒手空拳으로 善戰을 繼續하엿스나 最後에이르러 에고州와 왈칼州의 가라族이 反亂을 이르켜 마침내 侵略國에對한 抗爭을 放棄할수밧게 업게되엿다 今後方策은 아직 決定치못하엿스나 英佛兩國政府의 支持에 基하야 亡命地를 決定하게될것이다 (寫眞은 에國皇帝)

『에』皇帝의動靜

英外相下院에서言明

【倫敦四日發電通】에디오피아皇帝의 動靜에 關하야 四日午後英國下院에서 行한 이든外相의 言明要旨는 如左하다

에디오피아의 皇帝는 去三日바손駐에公使에 對하야 政務는 一切 內閣에 一任한後 御親政은 停止하고 팔레스타인에 赴할 希望을 傳하엿스므로 英國政府는 皇帝의 御希望에 副하야 예루살렘行의 便宜를 圖함이 可하다고 信한다 故로 政府는 巡洋艦 엔터프라이스號로 지부티行을 命하야 皇帝及 그一行을 하이파港까지 護送하도록 命令하엿다 只今엔터프라이스號로부터 入電한바에依하면 皇帝는 그리니치標準時 四日午後四時同艦에 御乘艦할 豫定이라한다 그리고 午後三時海軍省에서는 엔터프라이스號는 아덴港으로부터 지부티港에 入港하엿다는旨를 發表하엿다

에國皇帝는依然 元首로써待遇

英佛政府間一致

【巴里四日發電通】英佛兩國政府는 英國巡洋艦으로 亡命한 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陛下의 待遇에對하야 電話로 協議한結果 陛下는 依然 一國의元首임으로 行動의 自由가잇다는데 意見一致되엿다

에國皇帝保護는 違法아니다

英專門家의見解

【倫敦二日發同盟】英國政府는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에對하야 모든便宜를 圖하야 保護에任할 方針이며 伊太利政府와의 微妙한 關係도잇슴으로 目下英國外務省專門家는交戰國元首의國外亡命問題에對하야 國際法上見地에서 愼重硏究中이라고 解釋된다 右에對하야 政府及法律專門家는 二日午後 大要 左와如한見解를 披瀝하야 모든點으로보아 合法的이라는旨를 言明하엿다

英國政府는 하일레·셀라시에一世의 國外亡命에對하여는 法律的으로보아 두가지立場이잇다고 思惟된다

第一 國際聯盟의立場을中心으로보면 國際聯盟은 伊太利政府의 行動에對하야 侵略의烙印을찍은 以上 侵略으로 制服한 統治權은元首에對하야 英國政府가 便宜를與하려함은 聯盟規約의 行動으로 完全合法的이다

第二 國際聯盟存在와는 全然別個로 一般國際法의 見地로보드라도 明確한바와가티 에디오피아皇帝는 國軍總司令의職을委任하여잇는 關係上 一步國境을 너므면 戰時捕虜로서 立國政府는 皇帝를 收容하야 充分保護를 與할것이다 以上英國政府는 繼續觀點에서 에디오피아皇帝를 保護할것이나 아마 聯盟의關係上 前者의立場을 取하게될것이다

國府新憲法宣布

起草着手三年만에草案通過

問題의焦點은總統制의採用

十一月國民大會附議

【南京五日發同盟】中華民國憲法草案의 全文八章百四十八個條, 一九三二年第四次三中全會에서 建議한 主旨에 基하야 一九三三年一月 立法院內에 憲法草案起草委員會를 組織하고 起草에着手한以來 三年有餘 그間에會合百餘回 稿를 改正하기前後七回 마치내 五月一日立法院第三讀會를 通過하야 五日正式宣布를보게되엿다 國民政府는 來十一月十二日 國民大會를 召集하고新憲法을 附議하야 國民의 總意에 問할 터인데 이미 國民大會組織法及 代表選擧法에 關하야 大略成案을 어덧슴으로 特別한事故가 發生치 안는限 國民大會에 正式承認을 어들것이다.

新憲法은 蔣介石氏 統一案의 主張을 成文化한 것임으로 國內各方面, 特히 胡漢民氏, 孫科氏를 中心으로한 西南反蔣派間에는 反對論이 强硬한바 國民大會召集까지에 或은 猛烈한 反蔣運動이 擴大될는지도 全然豫測치안코 新憲法中 特히 問題될 焦點은

一、政府主席制를 廢止하고 總統制를 採用한것

一、總統은 米國大統領의 地位와 同樣으로 國政上 最高責任者로한것

一、憲法에잇서서 現職軍人의 總統就任을 禁止한것을 修正案에잇서 削除한것

一、總統에 對하야 緊急命令權을 附與한것 緊急命令은 中國政局의現在에잇서서는 濫用될念慮가잇다하야 憲法審議委員會와 中央執行委員會에서 議論의焦點이되엿스나 마침내可決되엿다

一、國民大會에서 承認한後에도 그實施까지는 一定한 過渡期間을 設할것을 要求한것 右規定에依하야 政府는 實施를 延期하고 其間에 憲法의拘束을 免할수잇슬것이다

五月五日宣布

【南京四日發電通】五月一日에立法院을 無事通過한 憲法草案은 이미國府에 送致되엿슴으로 中央會의 決定대로 마침내 五月五日에 宣布키로 決定되엿다 但四月三十日에 通過한 國民大會組織法, 五月二日에 通過한 國民大會代表選擧法은 아직手續이 完了되지못하야 國府에 送付되지못하엿슴으로 憲法草案과 同時에 公布하기는 不可能하게 되엿다 그리고 立法院이 最初에 憲法草案起草에 着手한 以來 三年有半의 日子를 費하야 稿를 改正하기七回에及한 大案이다 마치내 一段落을 지게되엿는바 五月五日宣布後에는 一般國民의 討議에 마겨來十一月十二日에 召集될 國民大會에서 採擇하는同時에 實施期日도 決定될豫定이다

佛,左派의勝利로 內閣總辭職必至

社會主義的綱領實現을期할 人民戰線內閣實現乎

【巴里四日發同盟】佛國政府는五日緊急閣議를開催하고 사로首相司會下에 總選擧後의 政局에對處할 方針에對하야 協議하기로 決定하엿다 이미人民戰線派가 壓倒的勝利를 確保한以上 사로首相은 憲政常道에 基하야 三十一日 議會閉會와 同時에總辭職을 決行하리라 觀測되는데 르부랑大統領은 右辭表를 受理하고 下院의第一黨인 社會黨首領블룸氏에게 後繼內閣組織을依賴하리라고 觀測되나 果然 블룸氏가 組閣要請을 受諾할는지 아닐는지는 아직疑問이다 그러나 社會黨을 樞軸으로한 人民戰線이 今後政局을 擔當하리라는것은 既定事實로 後繼內閣은 쏘聯提携 投機取締 資本家增稅等 社會主義的 綱領實現에 邁進하리라고 豫想된다

北鐵協定不履行을 駐日蘇大使抗議

滿洲國側의對蘇個人債權不應때문이라고

有田外相抗議를一蹴

【東京電話通】駐日蘇聯大使유레네프氏는 四日午後五時 外務省에 有田外相을訪問하고 北鐵讓渡協定에依하야 滿洲國이 北鐵에 對한 材料買込 其他에 依한 滿洲國側의 對蘇個人債權에 對하야 蘇聯側이 支拂할 從業員의退職手當 其他支拂이 最近支拂이 停止되여잇는데 이것은 協定違反임으로 日本政府에서 適當히 斡旋하기바란다고 抗議를 提出하엿다 이에 對하야 有田外相은 詳細調査한後에 回答하마고 答하야 유레네프大使의 抗議를 拒絶하엿스나 滿洲國과 蘇聯側의 連絡을 取하야 雙方의 支拂을 圓滑히 하도록 斡旋할 方針이다 (寫眞은 유大使)

蘇聯의極東海軍 太平洋作戰沒頭

海參威로부터 當地有力側에 達한 確報에 依하면 蘇聯太平洋艦隊 司令長官 비로로프氏로부터 四月三日附로서 太平洋艦隊 潛水艦員 全員에게 訓한 社會主義祖國의 戰鬪訓練에 優秀한 技倆을 發揮하야 職責을 다하고 士氣를鼓舞한 勳功에 依하야 潛水艦長 에기프코와 軍事委員 파스츠쿠兩名에게 赤星勳章 其他 船員三十四名에 對하야 功勞章을 授與하엿는데 右情報에 依하야 蘇聯海軍이 太平洋上에서 如何히 潛水艦의猛訓練을 하고잇는가를 알수잇다

眞崎大將入院

【東京電話通】眞崎大將은 五月一日 盲腸炎에 걸려 陸軍軍醫學校附屬病院에 入院하엿다

滿洲國,次長制實施

【新京四日發電通】今回 滿洲國政府에서는 財政部 星野總務司長의 次長昇格을 機會로 實業部 司法部에도 次長을 設置하기로되여 實業部 大橋 司法部 古田兩總務司長에 各各 昇格되기로 決定되엿다 右는 現在의 總務司長制를 廢止하고 將來次長制를 計畫할 前提라고 보아 注目되여잇다

伊軍先鋒部隊 에首都十哩에迫到

【아디스아베바四日發同盟】伊太利遠征軍의 先鋒快速挺身隊는 四日새벽首都를 隔하기 十哩되는 아카키河畔에 到着하엿다 先鋒部隊는 悠然히 同河畔에서 隊伍를 가추어 四日午後 首都에 入하리라고 觀測된다

新內閣財政政策의動向

增稅는同時에 인플레防止策 (二六)

徐椿

諸政策의 가려 모든 稅는 增加까지 展開해 본다면 此際, 大衆的 勤勞大衆으로 轉嫁될수가 잇지마는 他方, 此等 轉嫁不可能의것으로 볼수잇으며, 또 轉嫁시키는 程度及範圍의 差가 잇는것도 또한 注意를 要할 것이다. 例하면 直接稅로 말하면 何等의 困難이 업시 그全部를 卽時, 消費者에게 轉嫁할수 잇지마는 또한 困難하기도 하며, 또한 全部의 轉嫁가 못되고 部分的轉嫁에 그치고 말때도 잇슬것이다. 그러니까 이方面을 본다면 間接稅(大衆課稅)를 避하고 直接稅(財産課稅)에 손을 대어야 된다는 主張과 主張이 서는것이다.

그러고 既述로 알바와가치 間接稅에 對한 增率又는 新稅는 卽時, 物價에 影響하야 物價騰貴를 招致하는것이다.

그러나 他方, 그로 因하야 消費大衆의 購買力이 減退하기때문에 商品에 對한 國內需要는 激減할수밧게 업다.

故로 此等 商工業者側으로보면 (一)物價는 高하대 (二)賣買는 不振이라는 打擊을 밧게된다.

上述의 諸原則은 勿論 今番 斷行하려는 增稅의 境遇에 잇서서도 그대로 行한다. 그러나 馬場財政의 境遇에 잇서서 特히 한가지 생각할것은 他方, 赤字公債增發에 依한 政府의 軍備充實工作으로 因하야 財政인플레이순(通貨膨脹)이 同時에 起한다는 一事다. 此를 簡單히 말하면 增稅와 財政인플레이순이 同時에 起한다는 一事는 此際에 特히 吟味를 要할 일이다. 公債增發은 政府資金(新紙幣)의 民間撒布를 意味하는것이오, 增稅는 民間資金의 政府吸收를 意味하는것이다。故로 馬場財政下에서는 撒布와 吸收가 同時에 進行할 運命에 處해 잇다。 그러니까, 增稅가 업시 單純히 公債增發만 行하면 政府의 軍需事業으로 因한 財政인플레이순은 過度한 通貨膨脹에 依하야 惡性인플레이순으로 化할 念慮가 濃厚한데 他方 增稅에 依한 通貨의 回收가 잇기때문에 此를 幾分間, 防止할수가 잇다는 말이다。또한 公債增發이 업고 增稅만이 單獨으로 斷行되면 國民大衆의 購買力減退에 依한 商工業不振을 招致할 念慮가 濃厚한데 他方, 公債增發에 依한 財政인플레이순이 此와 並行하기때문에 商工不振의 勢를 緩和할수가 잇다는것이다。그러니까, 政府는 公債增發이라는 손으로 돈을 民間에 내여 뿌리면서 他方, 增稅라는 손으로 民間의 돈을 거두어드리는 工作을 進行하야 國防充實의 目的을 達하자는것이다。마치 저 鯨魚가 구지네(餌)로 물을 마시엇다 비아덧다하면서 養分攝取와 血液精化의 目的을 達하드시 政府는 日本銀行新紙幣를 民間에 뿌리엇다, 거두엇다하면서 國防充實의 目的을 達하자는것이다。

何如間, 이것을 보면 알바와가치 增稅는 이것이 單純히 國家의 收入增加策만이 아니라, 同時에 公債增發에 依하야 將來, 或, 이러날수도 잇슬 惡性인플레이순의 防止策이된다는 一事는 此際, 特히 記憶을 要할바이다. (續)

定例局長會議

定例局長會議는 五日午前九時十五分 總督府第三會議室에서 開催, 本府各局長으로부터 所管事項에 對한 報告가 잇슨後 散會하엿다

議會消息

議會에提出된 法律案三十二件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四日左의 法律案三十二件을 貴衆兩院에 提出하엿다

◆貴族院에提出

一、大正十二年法律第五十一號中改正法律案

(司法官試補及辯護士試補에關한件)

一、貯蓄銀行法中改正法律案

一、昭和九年法律第四十五號中改正法律案

(貿易調節及通商擁護에關한件)

一、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

一、日本銀行特別及損失補償法中改正法律案

◆衆議院에提出

一、米穀自治管理法案

一、米穀統制法中改正法律案

一、正租共同貯藏法中改正法律案

一、蠶絲國策統制法案

一、農業組合法中改正法律案

一、肥料業法中改正法律案

一、昭和六年法律第四十號中改正法律案

(重要產業統制에關한件)

一、商工組合中央金庫法案

一、自動車製造事業法案

一、東北興業株式會社法案

一、東北振興電力株式會社法案

一、不動産融資及損失補償法案

一、昭和十一年度一般會計歲出財源에 充當하기爲한 特別會計資金의 繰入及使用에關한法案

一、昭和七年法律第二十號中改正法律案

(滿洲事變에 關한經費支辨을 爲한 公債發行에 關한件)

一、昭和九年法律第七十七號中改正法律案

(滿洲事變에關한 一時賜金의 公債發行에 關한件)

一、對支文化事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一、恩給法中改正法律案

一、大正十三年法律第二十四號中改正法律案

(輸入稅에關한件)

一、昭和七年法律第四號中改正法律案

一、重要產業保護法中改正法律案

一、土地賃貸價格改正法律案

一、職業紹介法中改正法律案

一、保險業法中改正法律案

一、岩手縣에 株式會社所屬鐵道에關한法律案

貴族院本會議(五日午前)

【東京電話通】時局을 反映하야 緊張裡에 開會 五日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十三分開會 議長이 ... 近衛議長 ... 可決한다음 日程에入하야 ... 散會하엿다

衆議院本會議(五日)

【東京電話同盟】衆議院本會議는 午前十時 五十三分에 開會 富田議長이 ... 議長席에 就하야 ... 全院委員長의 選擧를 行하고 開票한結果

投票總數 三三九

二七四 熊谷五右衛門(昭和)

一九 杉山元治郞(社大)

一三 今井新造(第一)

一〇 佐藤啓(國同)

... 十二時十二分 散會하엿다

人事·集會

▲富田正洪氏(總督府文書課長)五日夜平南에 出張

▲嚴昌燮氏(總督府社會課長)金剛山方面에 出張中五日朝歸任

▲田中千代女史(鐘紡顧問)入京人事次로本社來訪

▲平賀三男氏(鐘紡서비스·스테이숀店長)「메이숀」開催人事次로本社來訪

▲栗才寶君(本報東大阪販賣所主任)과文葵淑孃의結婚式을來五月九日正午 大阪市區鴨野町耕天俱樂部에서金光洙氏主禮下에擧行豫定

八面錄

◇外事課의調査에依하면 在外同胞가 約三百萬名。

◇調査에 빠진사람까지 친다하면 實數가 얼마일고。

◇이러케만흔사람이 海外異域에 放浪하는데 이들을爲한 指導保護의機關은 무엇인고。

◇꼿求景으로 電車와뻐스탄사람이 三十六萬餘名。

◇昌慶苑과 電氣會社가 버리를 잘한것은 조흘지모르나, 밤잠 못잔 動物들이 가이업는노릇。

◇議長을目標하는 人間이란 참으로 怪常한動物이라고 원망이 여북하엿슬가。

強力殺虫劑

アース

日英佛伊 專賣特許

四天王寺五重塔再建

五萬名抽籤記念品贈呈

アース의能書에 여러분의 住所氏名을 明記하신後, 左記로(四錢까지三錢)郵送하시면 빠짐이업시 四天王寺五重塔의 瓦에 하야 芳名이 四天王寺五重塔에 永久히保存됩니다

大阪市四天王寺內 四天王寺五重塔再建奉贊會

締切 六月十日

上記奉送者中 다시五萬名을 嚴正히抽籤하야 左의記念品을贈呈합니다

四天王寺五重塔古材及古金屬製品 或은大阪市內各百貨店及御美堂特選品其他여러가지

七月十日부터順次發送

▲注意

郵稅不足은受付치안슴니다。多數의境遇는小包를利用하십시요

買入하신小賣店에 轉送하시고 寄託하서도조흠니다。

日本一強力殺虫劑

アース는……

最新式設備의弊社工場에서 日、英、佛、伊專賣特許에基하야 嚴密한化學的試驗下에 大量製產한殺虫劑アース는 比할데업는 强烈한殺菌力을 有하고芳香馥郁, 人畜無害로서使用輕便, 價格低廉함으로써只今은世界的販路와 世界的信用을博得하야 殺虫劑界에 最高權威로서 그名聲이赫赫합니다。

德用罎 七十五錢 四十五錢

사이다甁型 四十五錢

特製 七十五錢 四十錢

罐入 六圓五十錢 一圓七十五錢

噴霧器 三十五錢

特長 霧狀의細微霧가되여噴出하는故로經濟的이고또파리와모기에는有效適切합니다

アース本舖 製造元 株式會社 木村製藥所

檢擧·百七十一件에 人員二千三百餘名

其中 咸南北이 半數以上

昨年朝鮮內思想關係檢擧件數

경무국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작년중에 전조선에서 검거한사상관계사건은 일백칠십일건으로 검거인원은 이천삼백십이명이라 한다 이것을 전년에 비교하여보면 건수에있서 십이건 인원수에있서 오백명의 감소를 보이엇다 사상사건이 만흔도는함남북이며 두로 량도의건수와 인원은총수의 약반수를차지하고 그다음은 경기도평남경남등이고 최근 강원도에 점차사상사건의검거가 증가하는것이 주목된다한다 또 사상사건이 가장적은곳은 충남북으로 일년동안하야 한두건밧게안되는 상태이라하며 함남북지방은 검거건수의 감소와반대로 인원이증가하야 대량검거가 루차잇는것을 알수잇다

豆腐商끼리格鬪 同僚二名을刺傷

賭博으로밤새우다 싸움이일어나 加害者는引致取調中

오일새벽 시내북아현정(北阿峴町)에서는 두명이나 찔리어 중상을입힌도박군의 격투사건이 잇섯다 가해자는 시내대현정(大峴町)일백이십칠번지 두부장사장옥구(張玉九)집에 고용으로잇는 차금산(車金山)(二七)이오 피해자는 시내북아현정 이백오십칠번지 두부장사 류문경(柳文景)의 집 고용인 류기호(柳基浩)(二七)와 그집에서 긔숙하고잇는 리래산(李來山)(二八)두사람인데 그들세명은 사원밤 열두시부터 투전으로서 밤새도록 돈내기 도박을 하다가 오일새벽 다섯시반쯤에 서로말성이 생기게되여가해자 차금산은 주머니칼로써피해자두명을 함부로 찔러서 류기호에게는 팔과다리에 삼주일동안 치료를마한 중상을입히고 리래산에게는등에 약일주일동안 치료를 받을상처를 내엿다 가해자는방금 서대문경찰서 에서 붓잡어다가 취조중이라한다

三神炭坑落盤 坑夫六名生埋

原因은까스에引火

【平壤支局電話】오일오전령시 삼신부정 평양무연탄회사 소속탄광인 삼신탄광(三神炭坑) 남갱(南坑)안에서 돌연히 까쓰가 폭발하야 약사십미돌되는 암반(岩盤)이 떠러저서 작업중의 여섯명광부는 암반에눌려죽은것으로 추정되는데 회사로부터는 서촌(西村)주임기사가 현장으로 출장하는동시에 대동서(大同署)에서는 무등(武藤)서장이하박(朴)사법주임이 출동하야 시체발굴작업을 하는중이다 그리고 까쓰가 폭발된원인은 항내천정물이 떠러지며 작업한부들이가진 람프를부스며 까쓰에인화가되는것이라고하며 죽엇다고추정되는 광부씨명은 다음과갓다

▲吉寶鶴 李啟弼 鄭成珍 李正華 鄭灝孫 李楨命

【總督府鑛山課入電】오일오전령시반경에 평양(平壤)부외 삼신동(三神洞)탄광의남갱(南坑)안에서 돌연까스가 폭발하야 굴진(掘進)작업중의 광부륙명은 생사불명이되엿다 그리고 이폭발의진동(震動)에의하야 현장으로부터 사십메돌압헤도 상당히크게 허물러젓슴으로 회사측에서는 서촌(西村)주임이하가 출동하야 복구작업중인데 원인그라는 조사하는중이다

鄕客의全財産 三百圓을被盜

황해도 재령읍률화리(載寧邑栗花里)에서 잡화상을하는 황인규(黃仁奎)(三七)가 서울로 올하려 삼일 오후아홉시 오십분 도착렬차로 경성역에 도착하야 전차를타고 종로까지 오는사이에 양복바지속에 너엇든 전재산현금 삼백원을 송두리채『쓰리』를 맛고말엇는데 이보고를바든 종로서는 범인을엄탐중이다

外事警察을擴充 各道에外事係新設

外國人取締는勿論、國際스파이도嚴重團束

富山事務官渡東 豫算案折衝中

경무국에서는 금년부터 고등경찰기관을 확충하고저 방금이에관한 추가예산에대하야 보안과 부산(富山)사무관이 동경에가서 절충중이라는데 이것이 이번의회에서 통과되면 일반고등경찰의확충과동시에 각도경찰부고등과에는 외사계(外事係)가 신설될터이라한다

이미 경기도 평남북 함남북 경남등지의 고등과에는 금년봄까지에 외사계가신설되야 종래의보통고등경찰계로부터 분리되엇는데 이번에 이예산이통과되면 긔설외사계의인원증가는물론 각도고등과에 외사과를 전부설치할뿐아니라 중요항만소재지의 경찰서와 대도시의 경찰서에는 고등계에 외사경찰전담경관몃명식 배치하게 될터이라한다

그리하야 외사경찰이 확충되면 내무성의 외사경찰대확충의 실현과 또한번대의 고등경찰과 협력하야 재류외국인관계의 사무와취체는물론 국제스파이의 단속을 엄중히 할작정으로 이진영의 정또한에따라 경무국보안과에도 외사계의 특설을 보게될터이라한다

減少 四月中火災件數

十二件＝損害額二千餘圓 今月은火災씨ー즌·要注意

사월중 시내의화재건수는 열두건 손해는 이천삼백오십이원이며 이것을 작년본월에 비하면 열여덜건 이만이천팔백구십삼원이나 대격감을 하엿다한다 사월까지의 루계는 팔십칠건 이만일천이백삼십팔원으로 이를작년동기에비하면 이십팔건사십만팔백사십일원의감소를 보이고잇다 례년의례로보면 사월말은 상당히화재건수가만허 그중에는 참담한 희생자까지 나는 화재가잇기쉬움으로 특히부민제위의주의를 요망한다고 당국자는말한다

시어미와言爭끄테 며누리는結項自殺

시어머니와 언쟁끗헤 사파도피행을 감행한 묘령녀성이 잇다 부내 아현정(阿峴町) 이번지이십사호에사는 리갑순(李甲順)(二三)이라는 녀자는 사일오전아홉시경에 죽첨정(竹添町) 삼정목삼십일번지 산속에서 목을매여 자살을하엿는데 원인은 삼일오후여덜시경에 시어머니와 다소언쟁을한후 무단출가하야 적귀와가튼 자살을감행한것이라 한다

運動競技

十四團體動員할 興味끌 籠球리그

明六日、靑年會後庭서

籠球씨ー슨의 序春을 華麗하게 裝飾할 第六回中等校及 俱樂部 籠球聯盟戰은 朝鮮籠球協會主催와 本社後援아래 드디어明六日 午後四時부터 鐘路基督敎靑年會 後庭에서 열리게되엿다 이에簡單한 豫想을 試하기로하자!

◇…中等校 A級에는 徽新、靑年會學校、養正、徽文、中東等 五팀으로서 實力이 伯仲하야 戰前의 豫想을許치안흐나 徽文이 저윽히 優勢를 보이고잇스며 傳統을자랑하는 中東의活躍이 또한期待된다 그리고 昨年B級에서 昇進한 靑年會學校팀의 驚異的勇躍이 몹만할것이다

◇…中等校B級을 살펴보면 一高、培材、道商、普成、協實、中央等여섯팀이 覇權을 다투기로되엿는데 그中에서는 道商과 培材가 斷然頭角을 나타내이고잇스나 一高、普成、協實、中央等의實力자못다하잇스니 어느팀이A級으로 昇進할는지興味는絶頂에 達하얏다

◇…俱樂部에는 昨年의覇者 醫專을비롯하야 延專、高商의三角戰이 버러질터인데 延專은비록同聯盟戰에서 怨恨의한點差로醫專에게敗하엿스나 新年勢肉에는全日本의王座를 차지하야 廉殷鉉、張利鎭兩君이世界올림픽에出戰케되엇스리라 兩君을보내고도오히려 그陣容은조곰도遜色이업스리만지 整備되여잇다 C金應鎬、F洪文吉、李容鎭(中東出) G方元淳(養正出) 金程信(光成出)諸君이 鐵壁의 陣을치고잇다

이와 對敵할醫專의 陣勢는엇떠한가? 醫專의『흉게ー』이든 C金敎雲君이 同軍으로서는勿論잇지안흠으로 同軍의 멤버에끼여致命的打擊일것이다 그러나名까ー드李文鎬君을後衛으로C崔海龍、F中光浩、朴東德(中東出)G辛在範、洪德杓諸君의 布陣은相當한威力을 發揮할것이다 以上三팀의陣容을發揮하는듯이 制覇慾에 불타는 高商의進境이야말로 驚異的이되여잇다 長身金在春君을센터로 F金敎雲、金容武、G曹東煥、兪仁濬、李惠鋒、尹正燮等의『스타ー플레이어ー』는이 一團이되여 延專、普專의가슴을 서늘케하고잇스니 俱樂部리ー그의 三巴戰은例年以上의興味를이끌고잇다

伯林↓東京間 寫眞電送決定

올림픽大會光景을

來八月一日부터伯林郊外「그르네·왈드」를中心으로열릴世界올림픽大會景況을 日本遞信省에서는 伯林↔東京間의 無電으로寫眞電送할計畫하고 獨逸遞信當局과交涉中이든바 獨逸側에서는 次回大會의 有力한候補地인 東京과의試驗도할兼 이에 贊意를表하야마침내 實現케되엿다 그리고電送機는 日本產NE式寫眞電送機를 使用하기로되엿는데 遞信省에서는 諸準備次로 英國에잇는 東京遞信局技師 金原淳氏를 六月下旬부터八月上旬까지 伯林在留를命하기로되엿다 그豫算은 五萬餘圓을 計上하엿다

世醫專今年度 各部委員決定

世富蘭偲醫學專門學校에서는 今年度各部委員을 다음과가티決定하엿다

▲校友會運動部長 崔明鶴敎授 ▲學生靑年會運動部長 李德鎬 ▲蹴球部 李榮俊敎授 崔鶴周 朱復春 ▲庭球部 吳漢泳敎授 金斗永 崔允成 李基燮 白行寅 ▲籠球部 李容卨敎授 鄭東秀 南命鍋 亨錫 ▲卓球部 李錫申敎授 鄭一千 吳世珪 崔性章 鄭良信 ▲排球部 崔棟敎授 李重澈 엑캘리스 黃正鉉 ▲武道部 崔明鶴敎授 金鐵洞 尹裕善 安永濟 金泰默 ▲山岳部 尹致旺敎授 崔永泰 尹玉麒 ▲氷上部 閔山海敎授 鄭保赫 劉濟澈 ▲水上部 金鳴善敎授 金瀅鎭 金鴻仙

羅津採石場에 蘇聯"스파이"潛伏

琿春日本領事分館의手配로 二日羅津署에被逮

적색로서아에서파견된××"스파이"가 라진(羅津)경찰서에체포되엿다ー수일전 훈춘현(琿春縣)에서 잠입한 조선인모는 소련정부의 스파이라는것을 비밀로하고 라진항 라진산전토채석장(山田土採石場)일터에서 인부로변장을하고 로동에종사하엿는데 훈춘령사분관으로부터의수배에의하야 지난이일미명에 령사관원이명과 라진서원이 출동하야전기스파이를 체포한후 간단한취조를하여보고 훈춘령사관 본관에 즉일로 호송하얏다한다

天氣予報

槪況 低氣壓은 日本海上과 揚子江流域에 떠지고 北滿에도 低氣壓이잇서 東進하고잇다 또 不連續線이 朝鮮南東岸으로부터 濟州島附近을 거처서 沖繩方面에 뻐치고잇다 이때문에 南朝鮮에는 비가오고 中部以北은흐리며곳곳에안개가끼인다 滿洲는 晴曇이相伴하고 日本內地는 大槪흐리다。

豫報 京城地方은 오늘밤 흐리고 來日도 흐리다 京畿余區는 오늘밤 흐렷다 때때로 들고來日도흐렷다때때로드나아침에는 안개가 끼인다。

昨日最高 一六度九
同最低 一〇度
今朝最低 一〇度
今日正午 [illegible]度五

"假裝精神病"이 綻露 다시公判에廻附?

鑑定結果ー心神耗弱者로斷定

예심에서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로 인정되야 면소되엿든살인미수(殺人未遂)피고가 다시검사의항고(抗告)로 경성대학병원에서 정신감정을바든결과 심신모약자(心神耗弱者)로 감정되야 다시공판에 회부되려는 사건이 잇다

충남보령군 청양면야현리(保寧郡靑陽面野峴里) 삼백십팔번지 농업신영문(辛永文)(三四)은 소화구년 칠월부터 그동리사는 김상순(金商順)의 안해 리간란(李干蘭)(三二)과 관계를매저 오면바 리간란이가 그동리사는 현용인(玄用仁)과 오중진(吳仲鎭)하고도 추한관계를매저 점점 그에대하는 태도가 랭정하여짐을 분개하야 오든중 에서는 정맹동(鄭孟東)의방에서 현용인과 오중진등이 모혀이야기하는것을듯고 별정 리간란과 함께 이야기하는것이라고 추측한후 그는질투의 마음에 복바처 낫을들고 죽일작정으로 현용인과 오중진을함께 머리에와 얼굴에 상처를내이고 현용인의 안해 리성녀(李姓女)에게까지폭행을하엿다 이가튼사건으로 신영문은 곳경찰에 검거되여 살인미수혐의로 공주(公州)지방법원 홍성(洪城)지청 예심으로회부되엿든바 그는전부터 다소정신에이상한 점이 잇섯슴으로 예심판사는 그를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로 인정하고 면소처분을 내리엇다 그런데 관여검사 정상의명(井上義明)검사는 면소처분은 부당하다 하야 경성복심법원에 항고(抗告)하야 압도(押島)예심판사의 의뢰로 삼월십팔일부터 이십구일까지 대학병원구보(久保)박사가 담임으로 정신감정을 한결과피고신영문은 심신상실자가 아니라 심신모약자인것이 진단되엿다 이구보박사의 정신감정에따라 경성복심법원에서는 검사의항고를 수리하야 피고를다시공주지방법원 형사부합의공판에회부키로 되리라는데 그는지금도 정신병자인체하고 또그전에도다소정신에 이상이 잇는듯한 행동을 하여온터이라 이사건의귀결은 어떠케될지 자못일반의주목을끈다

朝鮮美展ー 作品搬入開始

조선미술전람회의 작품은 오일부터 회장에 반입(搬入)하기시작하엿는데 당일정오까지 반입된것은 제일부 십점 제삼부 십칠점이다 큰작품으로는 역시 대구(大邱)의 리인성(李仁星)씨이다。

심사위원은 팔일오후 세시에 입경하며 륙일에는 부외원들을 임명하야 심사위원장이 자문을 할터이라한다 (사진은 미전반입광경)

觀光自動車顚覆 九名中七名은重輕傷

五日、釜山署아페서衝突慘事

【釜山支局電話】오전열두시반경 부산부영정(釜山府榮町)부산경찰서(釜山署)아페서 부산합동자동차회사(合同自動車會社)소유 자동차로 운전수 김상인(金商仁)(三十)이가 운전해가지고 부산진(釜山鎭)쪽으로부터 오든 언양(彥陽)화물자동차부운전수 조수박병규(朴秉奎)(二七)가 몰아오든『경남』일천오백팔십일호와 마주쳐 화물자동차가 마즈쪽으로부드치며 김상인의 자동차가 뒤집히는 바람에 거긔에 타고잇는 승객 아홉사람중에서 일곱명은 각각 중상、혹은 경상을 바덧다。

충돌된 원인은 박병규가 아즉 운전수면허장을 못어든 조수니만치 서투른 솜씨로 운전을 한까닭에 그가튼 참사를 이르킨것으로 두편 운전수들은 모다 부산서에 불리어 가서 지금 문조를 맛고잇는중이다。

이번 충돌로 말미아마 중경상을 당한 사람들은 본사 밀양지국(密陽支局)주최로 부산으로 포구경을 왓다가 마산(馬山)쪽으로 도라가는길에 뜻하지안흔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게 되것이다。 그리고 몹시 다친 세사람들의 성명은 다음과 갓다ー

▼密陽邑 梁敬千(三六)ー女子ー重傷▼同所 朴那子(一九)ー女子ー重傷▼同所 本社密陽支局長 趙鍾龍(三七)ー重傷

電車轢人

사일오후열한시경에서 시내교남정(橋南町)압흘 운전수박두식(朴斗植)(二七)이가 운전하는 경전(京電) 제이백오십삼호차가 진행중 약칠십세가량의 로인이 뛰여들어 전치약 이개월의 중상을입엇다는데 주소성명을 아직알수업스며 피해자는방금적십자병원에 입원치료중이라 한다

補精强壯劑 海狗腎 眞品 樺太廳官營採取 請求次第說明書進呈 釜山府草梁町三二二ノ三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二一二九番·振替釜山七九二二番

藥 卸問屋 營業案內申越進呈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新井藥房 電本局 九〇四〇ー八六〇八 九〇四三ー四三四八 振替京城一六番

문둥병 의人에告함 血統遺傳、傳染을바든者及慢性되文도蘇病에眞實効能本位의家傳藥이잇스니明手封入申込하라 藥은無料 大阪市新川三丁目 大福堂

內科小兒科專門 醫學博士 韓京淳 (五月五日부터 診察開始)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京中前) 電光⑤一九二五番

朝鮮料理 天壽閣 風景과藥水의 安靜寺後麓 京城下往十里町 電本⑥四四九二番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小資本으로副業으로不分男女老幼 家庭에서 月收入을할수있는職業 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急募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藥本舖

말더듬이 訥言矯正院 京城府梨花町二〇四ノ三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裵龍先生의判斷은如神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 京城相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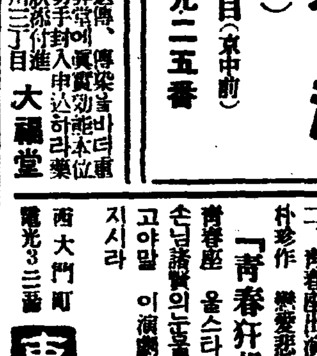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電本②三〇三〇番

京城府貫鐵町二一八 電話光三七四番 肋膜病門 海雷內科醫院 院長 李圭曄 入院隨意

校舍大擴張 生徒募集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黃金町六丁目廿三番地(電本②五二六〇)

晝夜生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第四十七回)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 (電本五三六〇番)

東洋劇場 五月五日부터 靑春劇 同時公演 『靑春狂想曲』 『마음의등人불』 『안녕합쇼·서울』 西大門町 電光③二三番



今も 昔も 効能で賣れる ひふくやく(시찌후꾸) 效能 上氣를引下하고通便을좋게함 梅毒淋疾諸毒을除함 大阪高津表門筋 振替大阪九七三·電南七二

女性

綠陰芳草勝花時

女性五月號의美觀

조선의녀성은 아즉도 세사람이 못되엿다만합니다 그러나 세사람들어떻게의 일말이 미약하야 그러타는것보다도 조선의 녀성을 지도할 그런그런이 적고 이들을 위하야 불평되는 서적도 많지안흔 까닭이엿습니다 그러고로 조선의 문화는 아즉까지도 녀성에게 허락을 준바가 크지못하야 따라서 세계에서 제일 고독하고 불행한이는 조선녀성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자매의 불행을 그대로보고 잇겟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들을 위하야 어떠한 시설이고 어떠한 운동이 잇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조선녀성더러는 그저 가정으로 드러가라기만 하는이들이 만습니다 이것은 「네로」의 설법입니다 조선의 녀성은 「거리로 나오너라」 하기만 하는이가 잇습니다 이는 너무도 관념에만 흐르는 말입니다 거리로 나와서 무엇을·하라는 말입니까 어떠케 살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그 말하는이들의 자긔모순이 잇습니다 또 「현모량처」만 되라는이가 잇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에게 현부량인(賢父良人)이되라는말은 엇재 업습니까 여기에도 모순이잇습니다 안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대우를 밧고 먼저 사나희들과어개를 겨누게되여야 하겟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잘 알어야하고 그리고 이사회를 아 가정제도를 아러야겟습니다 바누질고리를 끼고안저서 일하는 그 사람으로 박게서 소위 위대하게 지내는 사나희들의 일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와 똑가튼 일로 알게되고 똑가튼 인권을 가진사람으로 알도록 내 자신의 모든것이 되여야 하겟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해도 조선일보사출판부 (朝鮮日報社出版部)에서 발행하는 월간잡지 녀성 (女性) 오월호를 사보십시요 갑슨 단 十錢 送料 一錢입니다

純情的인憧憬의꿈
善男善女의結婚觀
이성을찻는 그들의새로운계획은?
禁斷果實에斷然不服

에덴 아름다운 동산에서 금단의 과일을 먹은것이 죄로되여 이세상에 쫏겨난 「아담」과 「이부」! 이것이 이성을 그리고 이성(異性)이 서로합하는 근원이 되엿다면 「아담」과 「이부」는 확실히 선남선녀(善男善女)의 방틀만한 조상일것입니다。

어떠튼 인류력사는 남녀가 합하지 안코는 밧일수업섯고 또 미남미녀때문에 세상의 지도(地圖)도 여러번 바귀엿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씨-자」의 사랑은 한나라의 영고성쇠를 말하엿고 나폴라이이세의 황후가 **독일** 녀성으로 로마노프왕조를 최후의 몰락의길로 이끈것도 남녀의이성관계에서온 비극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고 결혼합니다。이러한비극이 잇는반면에 또 결혼은 만흔행복을 낫습니다 「쿠르프스카야」가 「루닌」의 남편을 도아 한사회를 개조하지 안헛습니까。

그리하여 사람은 마음조흔이성을 그리워합니다。

이제 녀성(女性) 오월호에는 이선남선녀들의 꿈이고 아리따운 결혼을그려 오래로지게거려 되고 잇습니다

녀학교로운동선수를 나오는 바로 여자고등경기대회선수로 활동하는 박봉자(朴鳳子)양, 운동선수로이름이날린 김옥례(金玉禮)양, 녀자아나운서로 마이크로폰을 롱해여러분이 **의숙**한김문경(金文卿)양이며 선대의화부를 마치시고 피부과에서 연구하는정근양(鄭槿陽)군 신진작가 김유정(金裕貞)군 평론가 김문집(金文輯)군등선남선녀의 아로새것은 사람마다 결정이잇고아모라인 결혼들단이 아조지미잇게 렷습니다、

이결혼관 이야말로 오늘날신진청년 남녀의 결혼관의 일면을 엿볼수잇다는 점에서 이것은 누구나일읽을필요가잇는것이다

우리는단란한가정을원합니다 즐거운일입니다
나의남편、나의안해、
(寫眞은 란記事參照)

내가본나의남편
내가본나의안해

누구나 자긔의 남편자긔의안해를 어느점이 조코어느점이 어떠코 흉잡알지만 아므에게나 말을못합니다그

위인이라도 마조대해보면 별수업는사람이로 보인다고하는사람이만합니다 그러나 사람을우로조모 도에보기시작하면 한량업시 경정이솟다집니다 그러케정성이잇기에 인간입니다 그러치안흐면 인간이아니라 신(神)입니다 그러데어제 그분이 그분의안해를 그분이 그분의남편을 말할것잇는귀사가잇습니다 그러면 도어기에 단단히게하면 사진이잇습니다 엇마나 그분들은 피차에공경하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와 주로 말합니다

女子는 神의懲罰을바더는가
첫아기나흔女人의告白書
왜女子만人間孕胎를해야만하느냐

당신들은 이세상에서 제일무서웁고 제일원통하고 죽엄보담도 제일의착한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반드시 한번쯤은결혼이라는이생의꿋다운 절차를지내서야됩니다 결혼은사랑의무덤이라고한말이잇습니다마는 도사랑도꿋지잇슴하지 여기에는안이잇승으로 아마결혼이라는 엄숙한절차가생긴지모릅니다 그러나이만이아닌줄압니다 자연법칙을좃것으로쾌로이위적인 법률과가튼것인위적으로 엄격하게맨든것에지나지안는듯집습니다 그것은자녀를생산하는것입니다 당신만이세상에 사려야되겟습니까 당신이젊어서 꼿다운날을보내면놓치겟습니다다그러면 그무엇이우리인간의 미래를 녀자합니까 그러나하나님이 당신들에인이 좋지는지만 인간을생산하는어머니로삼은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무서운 하나님의 몰리해한 엄고한 법측입니다 다 왜 비행긔、라듸오、토-키—등 모든과학에 대한 진보도 는 자연의변화는 잇서도 독한 가지 녀성에게 천이간을 잉태식히게하는것만은 영원불변입니다 까 그래서 어느놈은 원통하고 분함을 참다못하여 「하나님이여 제가 전생의무슨 죄를 젓습니까 이것이그중벌입니까」고 외친이도 잇습니다 여기서 녀성이 참녀성이되는 각성이잇는데입니다

여기에 조선일보자 경치부의 한보홍(韓寶容)씨부인 리경희(李敬姬)녀사가 녀성(女性)오월호에 초산의추억(初産의追憶)이란 제목아래 녀성만아는 그비애를숨김업시 서는멍든이 잇습니다 어지이글을 안읽고 녀성이라 하릿까 (어린아이는 나흐면 저울려여길다는 것으로만 알고잇든내가……」하고서쓴 이눈물겨운 젊은어머니의 말을들으트라 (女性三十四頁에)

시집을 다시 가야하는가 안가야하는가는 이글을 다-읽고야 알라

자녀를둔젊은과부가
시집을갈까말까?
가엽슨녀성에게보내는금언

「과부가 시집을가야하나、안가야하나?」「열녀는 불경이부라하지안엇나」하고서 조선 십삼도의 과부네들이 고민을하고 이쓸쓸한세상에서 눈물로 세월을 속절업시 보내는이가 잇습니다 그것은 누구의말인데 그러케 들밋고계십니까

여기에 임정혁(任貞赫)씨는 녀성(女性)에 고결한 모성애(母性愛)가 잇슬뿐이라고하겟는데 이분의말에는

「청춘의 외로움을 참어가며 자식들의 장래를 두어깨에메고 **씩**씩하게나아가는 그어머니야말로 고결한희생적 삶이아니고 무엇이냐。여기서비로소 고귀한모성애를 차즐수잇다고 생각한다。필자자신이 이러한어머니의 사랑으로 길여난 까닭에 더욱 절실히 느끼여진다。남이갈사록 어머니의 사랑의 기피를진잡하게되며、그사랑을 깨다를때마다、감사의 눈물을 금할수가 업다。내어머니와 만일 지나치는 이긔주의 자이엿든들 나는어떤 구렁이에빠저、어떤학대를 밧고 살아왓슬지 모르는것을 오늘까지 소조로운길을 밟게하시고 **오**늘의 행복을 누리게된것은 오직어머니의 희생적사랑임을 기피거피 깨닷는다」라는것이 그들의내용의 한구절이다 또허하백(許河伯)씨는 남자사회에서는 밥뭇이 결혼、리혼、재혼、매음、축첩등의 두루춘풍의 성생활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병약 또는 불구자거나 그러치안흐면 무슨 주의한사업을 경영하고자 독신주의에한길을 거러가기도 할지나한번자연률(自然律)에 조차결혼하엿고 다시불행한 결과로과부(생리적 재혼코한이내의) 의신산한 경우에 서게된녀성이 재혼생활을한다는것은 하등사회적 시비의 **논**거를추어지지안는다」하고 또「그런데더구나 남편의그림자요 사랑의 구체적결정인 아들이잇다면 세상을떠난 남편의 일부내지전체의 축도가 현실로 눈압헤 잇지안흔가 감정이업슨물 이곳에서인용하야 중언을하고 십지아치만은 압헤잇는 귀여운축도 무럭무럭 자라는유상(遺像)은 모-든 고난을 돌파하는힘 그것일것이다 이힘은 청춘과부의 남어지생에의 지표이며 한개의 우상이다 우상의힘은 간혹위대할것이다」라고 하엿다 그러나 과부로써

女性五月號重要目次
表紙……安夕影
扉詩明鏡……李箱
◇그분들의結婚플렌
金玉禮 鄭槿陽 朴鳳子
金裕貞 金文輯 金文卿
◇내남편은·내안해는·어대가조흔가……
朴致祐……李源朝
吳永淑……金鐘淑
李亥順……金永昌
母性愛……李光洙
家族이야기…洪起文
選姬의길……鄭木伊
劇壇人物記…毛利利
◇名하이킹코쓰巡禮歷程……洪鍾仁
女流選手들의페이지……金福林
金德實……崔東珠
長髮美人貫那……李耳公
편과의便紙……金蓮實
……趙鳳順
◇子息잇는青春寡婦의再婚可否論…任貞赫…許河伯
初産追憶…李敬姬
短篇 (陣痛)……朴泰遠
連載長篇 (瀕死의白鳥(二回))……咸大勳
以下堂堂數十題

옛時節을바라고
青春의『트로이메라이』
金福林●金德實●崔東珠孃等의告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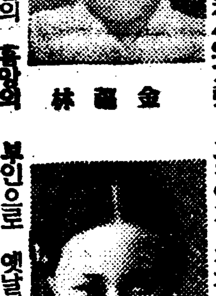
人氣女流選手들

조선은 「스포-츠계」의 화형들중에도 세상의인기를 독차지하고 일반팬들을 열광케한 스포-츠녀인들이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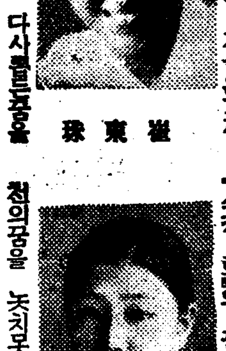
그이들이 한번 「그라운드」에 나타날때 그들의생활은 화려하고 그들의 용자는 천사와가텃

한때 녀학교정구선수로 한줌에 광영을입고 그선녀가리 나비가리 나르며 하-얏코 둥글둥글한 맵시한공을 향하여때리며 좆가리 이리뛰고 저리뛰며 미소하든 김복림(金福林)양은 어느듯엔지 결혼하야 지금은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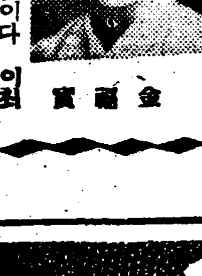
중홍주며 달리든 최동주(崔東珠)양도 겨울이 또오기전에는 그의 소식이 끈칠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그의가슴에는 크나큰 욕망의 불길이 타오를것이니 그의고향은 강계(江界) 그는 후시 「스케-트」의 꿈보담도 고향산



金福林



崔東珠



金德實

늘지모르다 모든사람의 흠양의 편역이되고 모든사람의 화제의 오른든 그러한 영광(榮光)꼿다운시절도 한때 지금 그들은이 딋서 무엇을하고잇고 무엇을생각하고 장차어떠한 생활을드려 갈런지 누구나 궁금한일이다

본인으로 옛날의 다시못올청춘을 추억하고잇을것이니 잡지녀성 (女性)에 이김복림녀사의 독백(獨白)이잇다 또、은반(銀盤)가를 어름위를 미끄러지는 낙엽가리 나르며 흰눈 날카로운 「스케이트」를 비벼 부비며 청춘을 노치지못할것이다 이최양도 「녀성」에무엇인가고백한、녀성잡지가 아니면 읽을수업는 글이잇다 도김덕실(金德實)양도 예전이듯시 그리워 눈물겨운진 마음의고백이잇다

斷然朝鮮雜誌王

朝光 五月號

堂堂四百餘頁의大冊

発賣中

燦然히빗나는朝光
即速注文하시오

本誌五月號가 發賣되자 暴風的으로 註文이殺到합니다 號마다 賣盡되여 朝鮮雜誌界의 一大센세이손을 이르키지만 이번號는 더욱 新綠號라 五月의 여러분은 朝光부터 차즈시니 이番號도 速히 註文하지 안으면 큰 狼狽니입다

美麗極致의表紙嶄新한內容

每號定價三十錢 地方郵稅本社負擔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振替京城五八七八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家庭

꼿구경에 동티나면 나드리도 후회막심

찬찬한사람에겐 탈이적은법

이만것은주의해두자

이리에서도 꼿구경 저리에서도 꼿구경 왼 장안이 들끌어서 거리마다 인해를 이루엇습니다. 일년내내 구멍속에서 헤어 나지 못 하시든 안악네들이 꼿철을 한때로 하로소풍을 하시게 되는 것도 그다지 반대할일은 아니올씨다。그러나 거리에 생기는 이런 봉변 저런실패에 구경이 곡경이 되고 나드리가 후회되는 수도 적지 안습니다。찬찬한사람에게 항상 탈이 적은법이오니 미리부터 찬찬히해가지고 나가고 다니시기를 권고합니다。

첫재로는 이 긔회를 엿보고서 좀도적과 소매치기들이 돌아 다니는 것을 이즈서서는 안 됩니다。공연히 한번 구경을 나섯다가 갑자기 불귀이나 아수운 물건을 엄호시고 두고두고 가슴을 알으셔야 되겟습니까?

(一) 전가족이 한께 출동을 하시는 것보담은 두패고 세패에 논하 나가십서요。

(二) 복축이 좋은옷을 하실 때에는 왕왕 술고담이 서두르지 마시고 찬찬히 보살피어 잘 들것 잠그고 걸것 걸고 따들것 다드셔서요。

(三) 금부치 은부치를 자랑삼아서 쭉 꼿고 나서시지 말것은 물론이요 당일 쓸만듬 잔돈을가지고 나서는 이외에 대금을 지니고 다니지 마십시요。

(四) 점심이나 거리의 음식을 차가지고 나서라도 아조 간편히 차리어 가지고 다니기도 조코 그릇가튼것을 일흘려도 앝도록 하서시요。

×

둘재로는 어린 애기를 다리고 다니시다가 고만일허버리고 그 만흔 인파중에서 찻자 못하야 절절 매게 되는수도 만흔 것을 아서야 합니다。나중에 찻는다니 그동안 속이 오죽하며 더구나 못찻게 된다하면 오죽애닯습니까?

(一) 본래부터 그런게 복잡한데는 애기네를 끌고나서지 안는것이 조켓습니다。

(二) 애기네를 꼭 나서실때에는 꼭 손을 붓잡고 다니시며 절대로 어린애 혼자를 떼여놓지 말어야 하겟습니다。

(三) 전차와뻐스를 타고오를때나 구경터를 들어 갈때나 공연히 황황하게 서드시지 말고 꼭 애기네를 몬저 압세워야 합니다。

(四) 미리 패가를 것을해 달아도 무방합니다。

×

그이외에도 여러가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그중의멧 가지만 추리어 엿숩니다。

(一) 오래 멈웃멈웃하다가 우-몰려 나올때 나오지마시고 남보담 몬저 일어나도록해야 나오기도 편코 탈것을 타기도 편습니다。

(二) 남이 만히모혀 섯는 을 일부러 부비고 들어가지말고 조용한 장소를 차저 다녀야 옷도 덜버리고 제피도 당하지 안습니다。

(三) 애기네가 사달란다고 이것 저것 함부로 사주지 마십시요。상한것도잇고 부정한것도 잇서 중독되기쉽습니다。

(四) 거리를 나서서도 공연히 한눈 파지 마십시요 자동차 자전거가 전보담도 복잡하야 다치기가 쉽습니다。

幼稚園巡禮記 (5)

輔仁幼稚園

수창동좁은길로 요리조리꼬부려저 드러가면 옷둑소슨 큰집이 하나잇습니다。이것이 보인유치원입니다。유치원으로서는세계에 몃재안갈만치 큰집입니다 하도 놀라워서 다시보니 정말 큰집은 유치원의언니학교인 보인보통학교이고 그정면에 보인유치원이 달려잇습니다。그야그러치요、언니들은 나이도만코키도 크니까 큰학교에 다녀야하고 우리들은 나이도적고 키도 적으니까 적은 학교에 다니지 안습니까?

그러나 언제바요、우리도 래년만되면 저 큰학교에 드려가서 언니들과 가티 배울걸요、그때는 우리도 막 뽐낼테야요 이것은 우리애기들의 순진하고도 겸사스러우며 그러고도 큰 희망에 불타고잇는 어린 심정의 일단입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나 노리터에서나 언니들은 대개 지꾸진거바요。그래서 아마 저이들의 넓은 운동장을 두고도 원아들의 그네라는데도 달겨들고 밋그럼지치는데도 밀치고 드러오나바요、그러기에 이 운동장 한모퉁이를 아주 따로떼혀서 사방으로 굴그나 굴근 철망을 얼키어서 줄을 처노코 콕부랑 스러운 놈은 드러오지못하는드시 딴천지를 만드러노핫습니다。그러고서 애기들은 아모 근심 걱정 업시 마음대로 뛰고놉니다。그러면 언니학생들은 시간이 파한뒤에 모다들 그철망에 우룽주룽 매여달려서 부러운드시구경만하다가는 물러갑니다

『우리는 사진박구요』

하고 애기들이 자랑을하면언니들은 더 부러워 못견되지요

봄의 솔—

멋업시걸면 남보매숭업기만합니다

꼿시절 한철이 숄을 두르시는 철입니다。두루매기나 외투를 벗고나서 좀 허전한것을 면키 위하야 필요한것인데 때마침 꼿시절이되야 목아래 느러진 고운 길이 그림듯도 해보엿습니다。

×

요지음은 애초부터 알맛게 맨들어 파는 숄도 더러 잇지만은 대개로 좋은 폭이 넓게 되야잇는데 그것을 그대로거려서는 오히려거치장스럽습니다。잘접어서 어깨아래로 그저 두서치쯤 덥게 하는것이 조코 길이도 키가 큰분은 허리쯤 키가적은 분은 그보담 조금 짤게쯤 나려트려 두는것이 조흡니다。

×

숄은 파라솔과도 달려서 전한 비츤 일체로 쓰지 못합니다。진한비츤 철도 안마즐뿐이 아니라 얼골의결점이라든지 피로한 긔색을 돗보이어 오히려 꺼꾸로 효과가납니다。그중에도 물론 옷빗과 마친는것이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보통으로는 엷은옥색이나 노스름한것이 무방합니다。

×

숄을 접는것도 얌전히 접어야 합니다。그래서 두르어 깨에 똑 가치 더피어 잇서야 합니다。그러나 그러타고 넘어 째곡째곡 접어서 겨울 목도리한듯 꼭 달려 붓도록 헤서는 아조 볼품이 업습니다。그반대로 이리 저리 축처뜨려어서 뒤흔들고 다니는 것은 교양이 업서 보이고추해 보힙니다。숄노 걸기어롭습니다。잘못 걸다가는 오히려 처사만스럽고 우사마한니다。

봄의 「마니큐어」

봄은 버들가지에서 할미꼿에서도 뛰여나고 나상이납헤서도 뛰여오릅니다。초목을 말할때에 그뿌리만가지고 일흠것은 아니지요。입은 가지에서 피고 꼿은나무끄레서 도다나듯이 인생(人生)의 봄은 손끗헤서찻지아니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변하고 굴으는인간(人間)의 공작(工作)은 모다우리의손끄헤서시작이되지안습닛가。손끗은일하는손끗이요、도사랑의 정서(情緖)를가득히 담은손끗이지요。어린아기의 손끗은 엄파가리 귀여운、손끗이요 청춘(靑春)의손끗은『라일락』처럼향그로운 손끗입니다 사람들은어손끗헤 어려곰、손끗에취할마치、미(美)의전자(電子)를 끈힘업시발산을한답니다。이 미(美)를조장(助長)하고、이 미를 북도둔 예술(藝術)이 곳『마니큐어』입니다。반달(半月形)을 분명히 그러곰、복어니마지 엷은도홍색(桃紅色)으로 몰을 드리되 손톱이 짤븐이는 끗을 제비부리로 빼신후에 전체로 몰을 드리곰、긴손톱은 끗헤마볼을 드려시되、안쪽으로 희면잘라보힐것입니다

모-델 金松月

美容師 閔惠令

少女小說 옥희와반지

金相德

옥희는 어린동생을업고 자장가를부르면서동생을 보아주고 잇습니다。

어머니는 아츰 일즉이 장에가서 아즉도도라오지 안흐셧습니다。오날하로도 다가고 해ㅅ님은 서산으로넘어가려고하고 가마귀도 제집을찻어가고잇습니다。해ㅅ님이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도록 장에가신 어머니는 아직도 도라오지 안흐셧습니다。어린동생은 엄마를찻즈며 울엇습니다 그러면 옥희는 자장가를 부르며

『우—자라 웅—에구착하지 조금잇스면 엄마오다 웅 어서자거라 내자장가 해줏게』옥희는자장가를 부르며 어린동생을 재웟습니다

『어머니가 왜엿일로 입때 안오실까 아니 언니까지 왜 입때 안올가하며 옹리바 느른나무향해서 기다리고잇섯습니다。

『옥희야 너거기서 무엇하니』

누가부르는소리에 뒤를도라다보니까 인순이가 야학에가자고차저온는모양이엇습니다。

『응—에구 인순이냐』

『그래』

『너혼자 여기섯니?』

『저어머니 오시기를 기다린단다 어머니하구 언니하구 장에 가셧는데 입때오지 안흐시는구나』

『그럼 오늘 야학에는못가겟니』

『글세 큰일낫서 왜입때 안오실까』

『뭐? 학교가겟니?』

『저어-저안 뭘하나가섯단다』

『그런데 왜 엄마 아니오실까』

『글세 난들 알수가잇니 잠간 갓다가 오신다고 하든니 저녁때가되도록 아니오시는구나 그런데 아즉시간은안되엿니』

『뭘 얼마남지안햇다 그리고 오늘은 첫재시간이 창가시간이나냐』

『에구 어거 엇더케하나』

『그럿치만 곳 오실러니 좀여기서 가티 기다릴까?』

『아니 그러다가 너까지 느지면엇더하니』

『늣긴 뭘늣져 인제 얼마안잇스면 너이어머니가 오시면 어린애를 맥기고 우리여기서 곳 가자』

『어나 책도업서』

『책은 무슨책이나 오늘은 반공일날이아니냐』

『그럿치만 저녁두안먹구』

『응-참』

옥희와인순이는 서로를바라보고 웃고잇슬때 멀리서노래소리가 들려왓습니다。

옥희와인순이는 그쪽을바라보닛까 윤내보통학교에다니는 경애와영희 둘이서 원족을 갓다가 도라오는모양이엇습니다。

옥희와인순이는 원족을 갓다온 경애와영희를부러운듯이 물끄럼히 바라다보다가

『경애하구·영희하구 인제들오는구나』

인순이는 어린말 한마디를 하고 야학에다니는 제신세를 생각하고 고개를숙으렷습니다。옥희도 인순이와가티 고개를 숙으리고무엇을 곰곰히 생각하는 듯 하엿습니다。

경애와영희는 새옷을입고 변도를 메고 손에는 코스모스꼿을 꺽거서들고 아주정답게 들려왓습니다。

옥희와인순이는 둘어서 고개를 숙으리고 무엇을 곰곰히 생각하는모양이드니 경애와 영희가 갓가히오니깐 고개를들고 먼—산을바라보고 한숨지며 섯섯습니다。

『인제들 오니?』 옥희는 경애와영희를바라보고 힘업시 한마디하고 섯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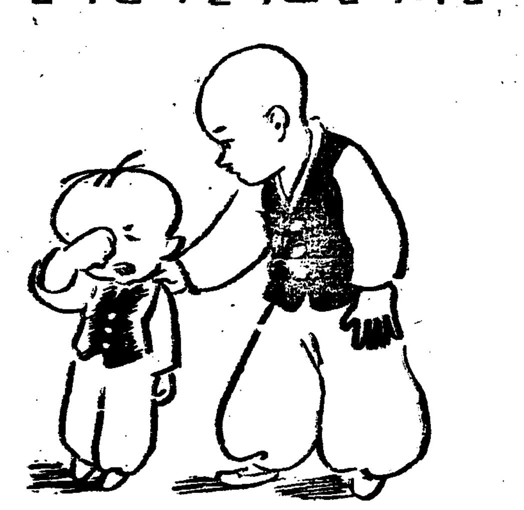
경애는 느트나무밋 풀우에 안즈며

『그래—엇더케다리가 아프지몰라、인순아 넘—서 야학으로 가니 그런데 옥희는 왜안가니』

우리 차지

수영이는 어제 심부름을 갓다오다가 길ㅅ거리에서 울고서잇는 어린애를 보앗습니다 엄마를 작고 찻는것을보아 엄마하고 가티 나왓다가 엄마도일코 길도 일흔 모양이엇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는 그애를 잘달래어서 파출소로 데려다 주엇습니다。

(금천사리 최윤현)



기성복만세!

일본쟁이가 보고 처음을 팔자—그래요—큰냉나무라의 서울 「코펜하—겐」의 어떤 기성양복파는집에서는데 백화(百貨)大觀을 위하야 모흐 안을 생각해냇스니 그것은 사진에 보이는바와가티 양복으로 온집을 틀페을주어 내거케 노흔것입니다。누가보든지 놀래잇스니 선전효과는 백퍼—센트잇스나 이러케야단스러워 교통방해가 되는 보든눈도 야단스러워 교통방해가 되엇기때문에 경찰의 철폐명령을밧고 하로스지간에 다치우고파렛습니다。

家庭 메모

「세로판」의덕

「세로판지」 즉화장품이나과자를 싸는 유리조히말입니다 어조헌로 무슨물건이든지 쪽면 습기를 막을수잇습니다 그런으로 푸성귀가튼것을 싸두면 몰끼가 날려가지를 안허 언제든지 싱싱한채로잇고、도옷을 싸두면 바게잇는 습기가 새어들지 못하니까 곰팡이가 잘안피고、또유기그릇가튼것을 싸두면 녹이 안납니다。

全京城二千園兒總動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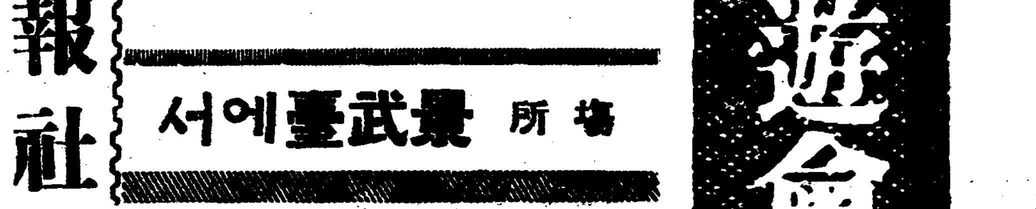
第八回 幼稚園聯合園遊會

參加幼稚園(無順)

樂仁幼稚園 往十里幼稚園 晶信幼稚園
樂二幼稚園 養明幼稚園 淸進幼稚園
三光幼稚園 水標幼稚園 新門內幼稚園
桃花幼稚園 麻浦幼稚園 和光幼稚園
孔德里幼稚園 槿花幼稚園 安國幼稚園
宮井幼稚園 輔仁幼稚園 業橋幼稚園
朝陽幼稚園 西大門幼稚園 永登浦幼稚園
龍光幼稚園 梨晶幼稚園 南大門幼稚園

主催 朝鮮日報社

場所 景武臺에서



기침에잘듯고먹기좋은약 チミツシン

지 밋 신

무서운기침病의 류행기가왓습니다 하로밧비「지밋신」으로 곳처주시사 감기 폐염 백일해 홍역을 미전에 예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백일해·홍역

기침병중에도 가장 고통이심한백일해 홍역의 특효약으로 구미각국에서유명한「지미草劑」의대표적제약으로 정확한효력이잇슬뿐만아니라 맛이 조흠으로써 약을실허하는어린애라도 잘먹게됨으로 더욱유효하며 더구나 극약성분과 마취성분이 조곰도석겨잇지안음으로 절대안심하시고 사용할수잇는약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림상적로에도눈 칭찬을맛고잇는약으로써 백일해 갓치 오래쓰는병도 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며 진행증에사용하시면 경과를밸으게하고 고통이심한발작을 다스리며 구토와쇠약과 무서운병발증을방제하고 밤잠을 잘자게 만들어 줍니다。

밧븐기침·천식

조선은 기후와토질의관계로 특히 밧븐기침 천식…호흡기병으로인한 담·기침에만흐니「지밋신」은 조선사람의체질에 꼭맛는만큼 무슨약보다도 부작용의염려가업시 잘듯고 잠을잘주무시게만들어주며 속히 근치식혀준다고 칭찬과 감사로 환영을밧고 잇습니다。

어느가정에도 한병식준비하시사 기침을하거든 한숙갈…… 잠재일적에 한숙갈식……

사용하시면 웬헌한기침병을 예방 하여주며 잠을잘자게하고 자는동안에 병증세의악화를 방지하여서 무슨약보다도속히 근치식혀줍니다。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

偶感草(中) 途中記

鷺山

나는 요즈음 흔히 山에서 세월을보낸다。半年이 넘도록 山을 쉬어지내고 지나는동안 나는 山에서 받은 거룩한感化를 거이 말하려하지아니하엿다。

오늘은 日曜日。나는 [illegible]히 决心하고 [illegible]三友에게 作[illegible]하야 [illegible]의[illegible]지이 山으로 頂上를 [illegible]하며 떠낫다。

우리들의 [illegible]中에는 [illegible]하나마 音樂家에가지의 [illegible]人거리가 들어잇섯고 말하다 山에 [illegible] 黃[illegible]의 [illegible]을 외이엇다 [illegible]을 벗서나니 만흔[illegible]이 [illegible]하야 미친듯이 [illegible]를 부르며 지나간다。흥은人情이 [illegible]을 [illegible]한다。흥은힘으로 [illegible]하는 사람도잇다。우리는 길사가의 우물로 내려가서 [illegible]水에 마른목을 축이엇다。즐거운 [illegible]의길이다。

[illegible]에 다니던 눈익은 [illegible]山이라 히구름끼어도는 北漢山城을 向하야 머뭇거림업시 차저간다。거이 마지막 人家인듯하엿다。집압헤 나와안즌 白髮老人이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illegible]하는 말을 던진다。

『무엇하려들 山으로갈까、참 [illegible]일들이야』

우리는 못들 [illegible]을 멈추엇다。우리는 모두 우섯다。[illegible] 우리의 [illegible]은 어찌 [illegible]으로 섞이어지지는 아니하엿다 나는 어[illegible]을 보고 생각하엿다

『山에 사는사람은 山을모른는고나』하엿다。마치 바다에 사는 사람이 바다를 모른듯이。

[illegible] 우리가 좋이 [illegible]하야 이老人과 더부러 이야기할수가 잇섯더면 우리는 또다른 [illegible]의[illegible]를 어덧지도모를것이다

몃해前에 山에서 지고온 [illegible] 다섯덩이를 市場에 노흐려고 十五錢에 사겟냐가 잇섯다는말을 이老人에게 들려주엇더라면 이老人의 어둡던귀가 어떠케 되엇슬까。

또 몃해前에 山에서 진달래 한목금을 꺽거온사람에게 五六十이 달러들어 겨우 한가지씩 다툰듯이하야 어더가는일을 보앗노라고 傳하엿더면 이老人의 어둡던눈이 어떠케 되엇슬까。

그의귀가 어두워 平和롭고、그의눈이 어두워 安靜한그대로、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냥지나간 우리의일이 잘한일로 알거니와、[illegible] 어떠한 새知識을 그에게 傳하엿더면、우리를 미친놈으로 보거나、그래처안흐면 그의世界에 큰變動이 생겻슬것이다。

우리는 마치내山우에올라간다。그리고 오늘하로를 山에서 헤를보내다。해가 진뒤에야 [illegible]을 밟으며 거리로 돌아왓다。

네거리에는 우리의 山行[illegible]이 얼리지안햇다。마치 [illegible]와거리 [illegible]되지 아니하엿다。[illegible]네거리는 서울놋구경을 올라온 시골男女들로 길이 메인다。그들은 電車소리、自動車소리、사람소리에 그만 精神을 일허버린모양이다。東西의 方位는 本來부터 알세가 업스려니와 제가 지금 어데로 가는지도 모르는 모양이엇다。

그들이 너무나 우서웟다。생각할수록 알지못할 일이엇다。나는 無心코 입안으로 중얼거렷다。

『무엇하려들 서울로올까、참 [illegible]일들이야』

그러나 그들[illegible] 다시 [illegible]하며、[illegible]에 北漢山 途中에서 들은 그老人의 말과 [illegible]제 내가 [illegible]의 [illegible]가운 것을 깨닷엇다。

[illegible]가 山에 사는 [illegible] 모르고 [illegible]마다 한번 山으로가는 우리를 [illegible] 그老人이나、나즈로 [illegible] 파무처살던서 生에 어찌다가 한번 서울을 오는 저시골사람들을 비웃는가、꼭 가리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랴。

요즈음 [illegible]마다 어시골사람들의서울구경을 [illegible]하야 보면다 그러나 나는내가 이[illegible]에 사는동안 저自身은 비웃지안코、어찌다가 한번 구경오는 시골사람들을 비웃는 그[illegible]한 自[illegible]은아니하기로한다。

山에사는 그老人가리 사람은 自己幸福을 알지못하고 거리에사는 우리들가리 사람은 自己[illegible]을 깨닷지못하는것이다。

文藝時評 性格描寫의 不調和

③ 嚴興燮

金裕貞氏의『동백꽃』(朝光五月號)은 農村小說이란 레텔이붓헛스나 實相은 農村小說이아니라 該誌編輯子가 編輯便宜上 命題한것갓다

이『동백꽃』에 나오는 人物은 『나』라는 二十歲未滿의 農村總角(?)과 『점순』이라는 十七八歲의 思春期에잇는 農村處女 단두사람이다。

人物이 단두사람이만큼 이作品의 줄거리는 퍽簡潔하고 鮮明하다。

『점순』이네는 『나』라는 主人公네집의 舍音이엇다。

그러나 이作品은 舍音과 小作農사이에벌어저서 뚜렷이 朝鮮農村의 一面相을 그리고잇는 現實을 把握하려는作品이라기는 너무도 그距離가 멀다고하지안을수업다。

이『동백꽃』은 農村에서 래여난 總角處女의 戀情을 다만興味잇게 가볍게 스켓취 해본데에 지나지안는作品이다。

그以上 다른무엇을 이作品에서 바란다는것은 오히려失手에 屬하는일이다。

이제 이作品속에 좀 깁히들어가보면 『점순』이와 『나』와는 『어제』까지도 그러케 親하지도안코、이야기도잘안코、보처만척점잔이지내는사이다。그런데 감자이『오늘』감자를 세개나 구어다준다。

이것이 十七歲前後의 天眞한 幼兒의 行動이라면 모른거니와 作家가 구태여말한바와가티 『어제』까지도 저와나는 이야기도잘안코 서로만나도 보처만척…』하고 점잔케지내다는―生疎한사이며 또한 年齡으로보더라도 農村少女十七八歲면 아모리 例外의 快活한―계집아이라하더라도 沈黙에잠기는 生理的變動期에잇서서 戀愛關係도업는 (이作品엔 그것을 副線的으로라도隱影을 던저두어야할것이나) 커다란總角에게 감자를 구어가지고 가서 불숙내민다는事實은 農村處女의純朴面을 興味잇게 보이려만해지 決코 이作品全體에비최서 自然스럽다고는할수업다。

비록作者가 『너、얼른 시집가야지……』하고옷으면 『걱정마세요! 갈때되면 어련이갈나구!』對答하는 程度의性格을가진『점순』이라는것을 說明하야 애써 그快活함을 讀者에게 理解식히려햇스나

『난 감자 안먹는다。너나 먹어라』하고 『내』가 밧지안엇슬때 홍당무처럼 그얼굴이 샛밝애젓다……』는 表現은 이『점순』이의 性格描寫의 不調和、不統一을如實이 엿볼수잇는 作者의 不注意라하지 안흘수업다。

不注意라는니보다도 讀者의 鑑識眼을 不快케하는 作家의 誇張性일것이다。

감자를 구어가지고까지와서 大膽히 커다란 총각에게 줄만한 勇氣를 가진 계집애라면 『안먹는다 네나 먹어라』하는 程度로 얼굴이 홍당무가될理는 업슬것갓다。

그것이 그러케 發展되자면 構成에잇서서 좀더 細密한 心理上 必然的 發展過程을 無視할수업는것이다。

이 作家는 用語使用에 技巧를 부리려하는것가트면서도 實狀은 그러치도 안타는것을 發見할수잇다는것은

『열일곱식이나되든것(『나』와『점순』을 말함――筆者 註)이 수근수근하고 부러다니면……』하고 마치 都市의 有閑男女나 學生層의 男女의 風俗과도가티 農村의 風俗을 그리려한데는 이 作家의 農村에 對한 知識程度를 저윽히 엿볼수잇는것이다。

[illegible]男[illegible]女도아닌 그들로서 或은 熱情에 타오르는사이라면 例外일것이다 그러치도 안은자이에 『수군수군하고 부러다닌다…』는 用語를 쓴것은 確實히 語彙에 主力하는 이作家로서의 一大致命傷이엿다고본다。

더구나 이作品에나온『나』라는 主人公의 性格이 점순이의 性格보다 뚜렷이 나타나지못한것은 너무도 이作家가 『점순이의 性格을 그리려는데에만 置重한탓이라하겟스나 『나』라는 主人公에게 一種의 失戀(?)―(이作品에나타난것으로보면 甚히 薄弱하다) 비슷한 苦惱情을주긴 『점순이의行動―『나』의 닭을잡어다가 또두려패는것가튼 場面은―너무나 히쓰테리칼한 少女의 輕薄한 性格을 表現하려함이라할수잇스나 이作品의 中心部分이 닭싸움붙치고 닭때리고하는 데에다 置重한感을 두는것가튼것은『동백꽃』이라는 이作品이 무겁게 쥐어잡고 잇서야할 핀트와는 너무도 그距離가 遙遠하다 할수잇다

한개의 作品이 構成될때 作家가 언제나 注意해야하는것은 作品中의 小道具과 小道具은언제나 小事件과 小事件으로 連結되여야하며 小事件과 小事件은 아려 고리(環)와가티 相互聯關性을 가지고 作品全體에通하지안흐면 안된다。

이『동백꽃』에 잇서서의 닭싸움은 이만한分量의 短篇으로서는 그程度가 너무도 過度한만큼 지내첫다고본다。

말하자면 이作品은 종내그윽한 『동백꽃』에서 움트는 情이 매저진다는 한개의 가벼운 自然主義的 小品文으로 볼수밧게 업다。

이作品에서 우리는 深刻한人生의 苦惱를 늣기거나 憂鬱한 現代朝鮮農村의現實을 차저볼수는 徹底히업다。

그러한 要求를 이作家에게한다는것은 無理일는지도 모른다 어쨋든 이作家의『동백꽃』一篇만을가지고는 말할게아니지만 이『동백꽃』을 通하야 우리들은이 作家의 무게를 저윽히推測할수잇슴을 記憶해둔다。

問題의 時代性 (五)

―人間探求의 現代的意義―

金午星

浪漫主義는 巨大한 社會的條件의 壓力속에 埋沒된[illegible]의 人間의 疎外、人間의 孤立을 直感하는層으로부터 形成되엿다。하나 그들에게는 人間의 孤立의 悲哀를 救出할 能力이 업섯다。여기에서 그들은 浪漫的인 避亂所를 짓게되지안흐면 안되엿다。世紀末的興奮을 갓게되엿다。十八世紀 浪漫派作家들은 想像的인 熱情과 主觀世界에서 單調한 現實을 떠나 感傷한 夢幻的인 時代 空想的파노라마 또는 自然的

無限的인것 에을 依存하는 神沈思境에 들어 안즈려하엿스며 니―체 키에르케―끝 도스토이엡스키等은 혹은 超人 혹은 地下室의人間으로서 現實을 呪咀하는 히스테리컬한 不滿을 吐하게하엿다。젤스·루이等이 代表하는 實用主義的휴맨이즘은 眞理의 標準을 瞬間的인 實用性에서 求하는享樂本位의 아메리카人의 願望的生活態度를 表現하고 잇슴에不過한것이다。

이리하야 神과 權威로부터 人間을解放시키고 個性의 生産的機能을 擴大시키기에 貢獻이 만흔人本主義는 近代社會의 絶頂에서 社會的條件에 依한 人間的存在의 埋沒로서 完全히 自己解體를 보여주게되엿것이다。

휴맨이즘의 自己解體는 必然으로 다시 네오·휴맨이즘 즉 새로운 人間探求를 必要로하게하엿다。個性으로의 人間 思惟하는 人間은 現實的으로는

自由競爭의 獨占形態에로의 轉化로 因한 社會的條件의 支配下에서 文化的으로는 自然科學과 精神科學의 獨立體系의 完成에 依한 壓力아래서 埋沒되고 말은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人間의 探求는 이러한 社會的 또는 文化的壓力에 埋沒된 人間을 解放시키며 人間의 主體的機能을 高揚시키는데 잇는것이다。그러나 그것은 벌서 個性 또는 思惟하는 人間의 立場에서는 不可能할것이다。그러면 現代의 人間探求는 어떤方面으로 움직이고잇는가?

나는 네오·휴맨이즘의 準備過程을 近代的인테올로기의 完成인 헤―겔哲學이 그自體內에서 內的分裂을 보여주는 契機에서 차저보고저 한다。『포이엘빠하』는 일은바―헤―겔左派로서 市民社會의 觀念論的體系의 批判을 始作한 最初의人이라고도 할수잇다。그러므로 나는 네오·휴맨이즘의 動機를 『포이엘빠하』에서 찻기로한다。

『포이엘바하』는 헤―겔의

思辨哲學의 批判으로부터 出發하엿다。그는『神의本質은 人間의本質이며 神學의 秘密은 人間學이다』라고하야 神은 對象化된 人間의 自己本質에 不過하다고 하엿다。즉 人間은 理性 叡知 個性과 意志 또는 感情등의 精神力에 依하야 自己를 對象化시킨다。神은 이러한 對象化된 人間의 本質인것이다。뿐만아니라 人間은 이러한 精神力에 依하야 類槪念의 人間으로부터 類槪念으로의 人間이된다。그러므로 類槪念으로의 人間은 理想으로서 自己를 抽象化한것이다。그런대 類槪念으로의 人間은 複數人인 民族 人類등의 社會共同體로서 類槪念으로의 人間 즉 單數人인 個人과의 關係에 서게된다。이兩者의 關係는 愛와·友情에서 되여진다。人間은 自己의不足을 他人에게서 補充한다。그리하야 人間은 서로 他者와 結合하게된다。人間과 人間과의 統一 여기에 眞理와 普遍性의 標準이잇다。이러한 人間의 統一體가 神이다。포이엘바하의 神은 이러한 人類神이엿든것이다

그런대 人間의 現實性은 身體를 가진點이다『自我는 現實的인 感性的인 本質이다。身體는 그

全體에잇서 나의 自我이며 나의 本質이다』그러면 身體的 感性的인 人間은 어떠케 自然과 交涉하게되는가?『포이엘빠하』는 그것을 宗敎的인『依存感情』에依한것이라하엿다。『人間은 他存在에서는 實存하지못하며 또實存할수업다는 感情』이 人間과 自然과의交涉을 지어준다。自然을 神化시키것은 이러한 依存感情에서이다。그러나 依存感情은 消極的依存의 感情이 아니라 오히려 積極的 主我的인 自己主張의 衝動 즉自己의欲求 關係을 外化시키려는 自我의 內部에서 불타는生命感에서 생기는 感情이라할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포이엘빠하의 人間學이 從來의 휴맨이즘과는 달른 方向에서 人間探求의 새로운길을 開拓하엿슴을 엿볼수잇다 무엇보다도 人間을 個人을 超越한것으로본것 또는 人間의 身體性을

發見한것은 그의 偉大한 功勞에 屬한것이라 할것이다。그러나『포이엘빠하』는 人間의 本質을 精神力에서 본것은 아직것 自己가 批判한 헤―겔哲學의 影響을完全히 脫出하지 못햇스며 社會共同體를 愛와 友情에서 成立된것으로 본것은 物質的制約力을 가진近代社會를 바로보지못한것이며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를 依存感情에 依하야 說明한것은 아즉 神秘主義에 사로잡혀잇는 證據이엿든것이다。

포이엘빠하의 이러한 缺點을 克服하면서 나타난것이 맑스、엥겔스이다。그들은 헤―겔의 精神 共同體를 社會的 物質的인 것으로 바꾸어 노앗다。近代人間을 埋沒시킨것은 世界理性이 아니라 社會的 物質的條件이다。그러므로 社會的條件의 制約을 克服하지안코는 人間의

自己疎外는 救濟할수 업슴을 指摘하엿다。맑스에 依하면 社會는 愛나 友情에依하야 結合된것이 아니라 生産關係로서 지여지는 것으로『모든社會的總體』가 人間의本質인것이다。따라서 人間과人間 人間과自然과의 交涉은 實踐을 通해서만 成立되는것이다。

平和擁護!

◇平和를爲해서는一切를◇

◇萬人을爲해서의平和를◇

(巴里國際聯盟會館) 反戰、反『파―시즘』世界委員會의 委員長으로서 平和擁護에 東奔西走하고잇는 文豪『로망·로랑』氏는 今年이 七十歲의 老齡에 達하엿스면서도 그 嚴正히 靑年을 凌駕할만한데『平和를 爲해서는 一切를 萬人을 爲해서 平和를』의『슬로간』을걸고 全世界 平和愛好者의 崇拜의的이되여잇는데 最近 다음과가튼 演說을 行해서 獨佛政府의 好戰的政策을 痛烈하게 鞭撻하엿다

『히틀러』는 歐羅巴에잇서서 平和團體와 事業을 全部破壞식히고말엇다。佛蘭西의 兩手를 束縛하려고하며 『히틀러』主義者는 佛蘭西聯邦을 攻擊하고잇다。我等의 要求하는바는 不可分一體의 歐洲平和이다 昨日의 條約을 今日에 破棄하고 今日의 條約을 明日에 破棄하고도 조금도 羞恥로알지안는나라가 提案하는 似而非平和條約을 佛蘭西가 萬一이라도 受諾하는 憎惡한點을 보힌다면 平和의保障은 全部破壞되고 戰爭의 脅威는 永久히 歐羅巴에서업서지지아니할것이다

我等은 全歐羅巴에 對해서 聯盟理事會에向하야 외치는바는이러한다 侵略者에 對抗하야 歐羅巴의 平和를 維持强化하고 東歐西歐의 모든 國民間의 連帶를 强하게하라 萬若 聯盟으로서 行動을 取하기를 拒絶하여서『에고이즘』에 움직이게되여 弱化하거나 躊躇하려면 聯盟은 卽時에 解體하고 말것이다 벌서부터 『히틀러』主義의 貪慾한 그 먹이가 떠러저잇는 英、佛、伊、中歐及 小協商國、『오―스트리아』、瑞西等은 서로 團結하야『히틀러』의 侵略에서 몸을 護衛하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都市의 表情

都市의 誕生과함께 地球는 交通에다가 그 第二世界를 構成하고잇다。그래서는 맛치내 鐵骨과石造벨딍의 森林을 이루고 마는것이니 이것은 現代都市의 가지는 한개의로맨티시즘일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긔는 舞臺裝置이다。扮裝과 衣裳이 整備되지못한채 이처럼 엉성하고 이처럼 허술하지마는 장으로 幕이열리는 다음瞬間이되면 그때는 수만흔 星辰을 어르만질듯한 摩天樓가 도하나 웃둑 소슬것이다。

그러면 이거리는 새로운 樣式으로 [illegible]의 첫幌을 여나는[illegible]의거리 華麗해진다고한다。―[illegible]―

科學雜錄 高空觀測

모스크바 시테른벨크天文臺學術秘書役 天文學者 프로리야氏는 지난 一月初旬 皆旣月蝕을 對流圈으로 觀測하엿든대 近日에數學的 結果를發表하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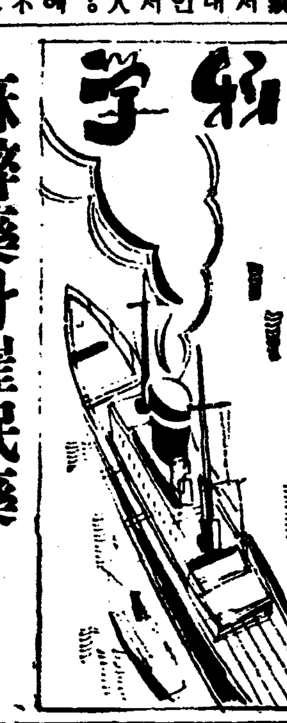
지금까지에 明確하게 觀測하게되엿슨 그觀測이 非常한 成功을햇다고볼수잇다 모든裝置가 아모 故障업시 進行되엿기때문에 月蝕에關한 重要한資料를 充分히 受取할수잇섯다

對流圈으로 觀測의 成功한 天文學者의압헤 새로운 命題를 提供하엿다 그技術은 하로 먼저 充分히 全部를 獲得하야 그것으로서 本年七月十九日에 皆旣日蝕을 기다리며 準備中이다 그래서 모스크바 天文學者는 드디여 近日부터 高空日中飛行을 連續開始하고 太陽『스펙틀』과 太陽彩球의觀測이다되면은 太陽『크로나』의『스펙틀』의觀測을 行하겟다고 決定하엿다

觀測者는 모든것을 觀測하기위하야 對流圈으로 一萬米나되는 高空으로 上昇한다고 한다

科學 麻醉藥과催眠藥 (上)

朴太奉



元來麻醉藥과 催眠藥이라는것은 生理作用이나 化學構造에잇서서 別로 다른것이업시 다만 一般으로 麻醉藥이라고 부르는것은 揮發性이잇서 이것을 吸入할때는 그作用이 速히 이러나고 또한 그期間도 適宜하게 調節할수잇는것이다。그러나 催眠藥은 이와反對로 不揮發性임으로生體內에서 酸化하지안는것이 便利는하나 따라서 그作用도 徐徐하게 이러나고 또한 永續的인것이다。

脂肪屬化合體는 大槪 生活細胞의 機能을 麻醉식히는 作用이잇스나 그中에도 中性으로脂油에 溶解되기쉬운것은 血中에 吸收된後 中樞神經系統中에잇는 脂肪樣物質인『리포이드』라고하는것에 溶解固着해서 神經機能을減殺식히는것이다。例하면 瓦斯體及液體의 炭化水素、一價의『알콜』『에―텔』『알데히―드』『케톤』等類 가튼것이나 中性의『에스텔』가튼것은 모다 麻醉作用이잇는것이다。

우에서 말한바와가튼 脂肪屬의 炭化水素는 麻醉作用이잇스나·이것의 分子內에 水素基가 드러서『알콜』이된것은 그作用이 一層 더增加되는것이다。그러나 水素基가 增加되여서『그리세린』가튼것에 이르면 이作用은 消失해 버리고 만다。水素基는 어떠에 定着基로서 存在하는데 지나지 못하는것이다。그래서 麻醉作用은『알키―르基 더구나『에리―르』基의 存在에 因하는것으로서『알콜』의 麻醉作用은 水素基에依한것이아니고『알키―르』基에依한것이다 또한 炭化水素中의 水素原子를『하로겐』이나 鹽素로 換置하면 그作用은 크게增加하는것이나 이것으로서 芳香屬系의『하로겐』化物에는 이 作用이 全然업는것이다。

吸入에依한 一般麻醉藥中에는『하로겐』化物(例하면『크로로호름』)과가튼것이나『알키―르』基를 含有한 化物、例하면『에―텔』가튼것을 主로하나 이外의 化合物에도 이作用이잇는것이 잇스니 이러케보면 化學的으로 그構造上 별우 共通點을 볼수가 업다。그러니까 麻醉性이잇는 物質에는 物理的으로 共通點이잇지는아니할까? 여기에 對해서는 여러가지 學說이 잇는것이다。

「오바―톤」과「한스·마이엘」의 說

우선 麻醉藥이 細胞의 原形質內에 擴散하는 速度에對해서 생각한다。一般으로 擴散의 速度는 그物質이 脂肪에對한 溶解度에依한것이다。그래서 細胞外部 卽 細胞膜에잇는 脂肪樣은 主로 물이라는것을 생각하면 그物質이 물에對한 溶解度와 脂肪에對한 溶解度의 比에서 그物質이 細胞內의 脂肪中에 擴散하는 速度가 決定될것이다。卽 脂肪에對한 溶解度를 S'、또 물에 對한溶解度를 S라고 하면

$$\frac{S'}{S} = \text{分配係數}$$

麻醉及 催眠藥은 一般으로 速히 擴散하는것이므로 어느것이나 큰 分配係數를 가질것이다『마이엘』의 實驗에 依하면 麻醉力 또는 催眠力과 分配係數와는 거의 正比例된다는것이 認知되엿다。이 實驗에 依하면 一物質의 催眠作用은 脂肪에 對한 溶解度에依한것이라고하엿다。그러나脂肪에對한 溶解度는 반드시分配係數와 一致하지안는다는것도 理解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 飢餓의 動物에對해서는 各種의麻醉藥이 一層 더作用이强할것인데 이것은 藥品을 吸收하는 組織脂肪이 적은때문에 大部分이 中樞神經系에 吸收되는때문이다。이事實은 前說을 證左하는것이나 事實인즉 이와 相反되는例도 업지아니타。例하면外圍의 神經은 脂肪樣物質을 多量으로가지고잇는데도 不拘하고脂肪屬麻醉藥의 作用을밧는일이적은것과가튼것이다。

詩苑社出版의 「乙亥名詩選集」(下)

咸大勳

鄭芝溶氏의바다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가티
재재 발랐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안헛다
흰발톱에 찢긴
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가스로 몰아다 부치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
를 시첫다
이애쓴 海圖에서
손을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
휘동그러니 바처들엇다
地球는 蓮닙모양 오므라들고
펴고!

나는 이詩를읽고 그形式의整齊되옴 리즘의 보드라운動 또表現技巧에 能熟한것에 感歎하엿다 다시말하면 이詩는 確實히 靑上을 곱고맑게본 明朗한 노래다 生動하는 바다 그것도 아름답고 香그런 海波의 알롱달롱한 모양을 아ㄹ조 巧妙하게 그리엇다

그러나 나는 이詩에잇서서 한가지 바라고 십흔것이잇다 그것은 그가갓고잇는 能熟한 表現을 엇지하여 人生과의 相互關聯에잇서서 表現주지안흘가? 이바다가 더 아름다운 詩에 좀더 人生과의 距離를 갓가히 해서 人生과 自然과를 衝과의 渾然한 合致를꾀하지안흘가하는것이다

海洋詩人 쫀·매스필드의 그러운바다가튼것을보면 거긔는 바다를그리고 바다와生活하는 漁人의 몸결을그리는 香氣로운 냄새가 흐르고잇다 그리고바다를 그리는 熱情이잇다

나는 이러한意味에서 芝溶氏詩가 그表現에 잇서서 그 極致를 엇운 오늘날 그는 맛당히 한개 社會와人生에 對하야 좀더 熱情的인 把握이잇섯스면한다 그러나 그러타고 나는 이詩를 過少 評價하려는바는 아니다

白石氏의『가즈랑집』

氏의詩는 그의 詩集出版會時에도 말을 해서지만 鄕土的인 童話의 世界가 자미잇게 展開되엿다。그山人꼼 마음의 鄕土的 情緖가 몹으녹아 그獨特한 方言과 함께 異常한 냄새를 돗는다

◇

以上으로서 나는 이『乙亥名詩選集』中의 몃篇의 詩에 對한 感想을 적엇거니와 元來 나는 이 詩集全體에 對한 [illegible]評을 試할 目的이 아니엇스므로 이것으로써 詩의 鑑評은 끗막으려한다。

다만 내가 淺薄하 아 봄을 느낀것은 오즉 貧弱한 出版界에 [illegible]한 詩壇에 잇서서 이런 出版이 얼마나 寶貴하엿다는것을 말해보려는데잇는것이다。

우리는 어느方面으로나 先進國에게 比해 그文化的水準이 여튼을 [illegible]한다。그것은 政治經濟的諸情勢의 不利한것에 由한 [illegible]한 事情이라하드래도 우리의 꾸준한 文化的 努力은 그[illegible]을 걸어가면서도 어느程度의 結實이잇으리라고 밋는다 그러한意味에서 나는우리의不屈한 努力이 絶對必要함을 主張하는것이다 이제어느民族史를 보드라도 우리는 그民族의 藝術이 그 高度에 잇섯슬때 그 民族의 隆興을 본다 이것은 케케묵은 異民族의 歷史를 顚覆히 들추내일 必要도 업는 것이 어느와 갓가히 朝鮮의 歷史를본다하드래도 新羅高句麗時代의 隆興이 그藝術文化의 高度의 發達에因한것이라고 할것이안이냐? 그럼으로 나는 詩苑社에서 이번『乙亥名詩選集』의 刊行이 비록적은 出版이나마 今後의 더만흔 努力이잇기바라는 同時에 이런 良心잇는 出版이 續續刊行되기를 바라마지안는바다(定價一圓 振替京城二二六四三番)

讀者社交室

▲讀者中에 朝鮮詩壇第八號(最終號)를 가지신분으로 一部寄送하시는분에게 新刊雜誌 一[illegible]代送하여 드리겟습니다 [illegible]빌녀만주서도 조켓습니다。市內積善洞一四五 文星

▲여러분께 社交室에서 人事말슴엿슴니다 未安합니다만은明治二十八年陰曆三月十七日이 陽曆으로 몃칠이나되는지 좀알아하여주시면 感謝하겟슴니다 알고싶은生

▲花山蝶舞生에게 貴下는 去二月十六日問疑하신 大正三年陰二十八日은 陽三月二十四日이옵고 同年陰八月二十二日은 陽十月十一日이올시다 殺寧邑梧林生

▲醫師(某大病院서 研究中의 産婦人科專門醫) 夜間勤務할 職을 求함 有意人士는 左記로 通知하시오『京城帝國大學 醫學部衛生學敎室 崔養植方』 周 哲

▲生이 朝鮮近代歌謠를 研究하옵는바 或讀者諸氏中에 松江鄭澈先生의 松江歌辭와 松江集을所有하신이로 讓渡 或은 一定한 期限間借貸하여주실수잇슴니까、適當한 價格이나 手數料를드리겟슴니다 松江歌辭는 古版을 願하오며 最近版(大正以後)은不必要하옵 市內長沙洞一〇二ノ二 金思燁

▲左記書籍을求하오니 讓渡하실분이게시면 下記住所로 書名及發行年月日 出版所價格等을明記하여通知하시면 感謝하겟슴니다 獨逸語原文哲學書類、宗敎、生物學等에關한書籍及ザンデル著獨逸語書 元山府本町五丁目二三四 權寧義

▲小生所持書籍(主로和文小說)과 手風琴(新品約二十圓級)과의交換을 望하오니 詳細는左記로 通知하야주시면 小生은 讀書目錄을作成하야 通知하옴 全北裡里邑本町一丁目 姜大[illegible]

▲丁子屋三層小兒學生服部에게 신어 日前十二日午後六時頃 學生服을때에 親切히하야주심 感謝합니다 다―만 社交室을通하야感謝함을드립니다

▲滿洲로간 事業家君이여―君이 遠大한希望을 품고異域으로 떠난지도 벌서四年이로구려 그러나하장의 [illegible]가오지안코나 消息몰알기에목마르려죽겟소 [illegible]드거대 君은그곳에는新聞社에入社하야活躍한다하니 부대消息좀 알려주구려 京城自宅에서 成俊鐘

자랑할만한 子宮病藥

女子醫學博士가 體驗하고推奬한

內服藥 命之母

外用藥 오기나球

●대하증의原因과 治療法●

대하증이라는것은 月經以外에 局部에서 말근물이흘으기도하고 或은 고름가튼것이 흘으기도하는것인데、그原因은 男性에게淋疾이나 梅毒가튼 性病이 傳染되거나 月經時의 不注意와 房事過度나 卵巢炎、膣炎等의 모든 子宮病으로부터 생기는것입니다 대하증의初期에는 코름이나、게란흰자가튼물이흘으다가 점점심해지면 피고름이나오게됩니다 그러므로 대하증이잇으면 局部에서惡臭가 나게되며 子宮內部의 모든機關의障害는말할것도업고 이에 惡結果가 반드시생겨서治療를 할내야할수업시되여 一生을괴로게됩니다。이와가티무서운대하증을보통부인들은 女子에게는당연히누구에게던지 잇는것이니하고 治療를 게을이하는부인도잇으나 실상은 이러케放任해두는동안에 病菌은더욱繁殖되고 患部는刻刻으로被傷됨을따라 身體는전정衰弱해지고 頭痛肩凝이나며 手足腰部가冷하며 下腹引痛等의모든症勢가併發하게됩니다 그뿐아니라、대하를가운데는 酸性의毒素가잇는關係로 男子에게 바든精虫을撲殺식히므로不姙症이되거나 或姙娠을한다하드래도 流産이나早産을하고마는悲慘한運命에빠지게됨니다 이와가튼病이 잘못되는인은 適當한 治療方法을찾지못하야 날물이는 한숨과눈물로 번민을하며지금까지 平和하던家庭도子女를出産치못하는탓으로 차차不和하게되며 甚하면 시부모와남편에게 소박까지 맞는수가 허다하오니 하로바삐治療를 게을이말것입니다

藥物이 發達된 現文明時代에 子宮病根治藥이 엄슴理가잇겟습니까、여긔서、대하증을 根本的으로根治하시면 얼골에화색이돌고 주름살이펴지고、아름다워지며、손발이더워지고、血液이 循環됩니다 同時에 不順하던月經이順調롭게되며 대하증이根治되고 子宮病全部를治하고 病菌과毒素全部滅殺하고 [illegible] 나니다。또한、外用藥으로 患部에 直接使用하는 오기나球도잇사오니 內服藥命之母를服用하시며서外用藥오기나球를併用하시면 더욱速治됩니다、오기나球는 주무시기前에한개식 膣部에 挿入하야두면하로밤동안에 그藥効를 顯著히알수잇슴니다

이命之母와오기나球로말하면 三十餘年의 기나긴歷史를가지고 東洋婦人患者는 勿論이오近日에는西洋婦人患者들께서도 服用하시고 子宮病을全治하고 愛兒를 出産하신實例가 허다한것인바、의好評과 本舖에到着한禮狀과 愛兒의寫眞이 證明하오니 여러분家庭에子宮病으로苦痛하는患者가잇스면하로바삐『命之母』와『오기나球』의良效에 全快하시기바라나이다더욱이『命之母』와『오기나球』는東洋婦人의體質에 가장適合하게理想的으로 製造販賣하는藥이므로누구던지 一次試用하시기바라나이다

대하증이二週分에 全快되여 姙娠햇소

前略『命之母』를付送해주서서 처음으로 服用해보즉 氣分이조아지며 겨울에도추위도몰으고 健康하지냄으로昨年여름에는 姙娠까지하야 姙娠中에도別故업시 健康하지내다가出産햇습니다 産後에도『命之母』의德澤으로以前에는不順하던月經이 順調롭게되며 대하증도根治되고 지금은結婚當時다도 조곰도變함이업고 어린애도튼튼히자랍니다 後略

(上記寫眞은 小川아끼子)

『命之母』는 各地有名藥店에서도販賣하지만 特히本舖로 注文하고자하시는분은 藥代金을 振替東京五〇五〇番으로 또는 小爲替로보내시는것이 第一安全하고 便利하오나 萬若藥價를 指定치아니하는때는 病勢만자세히 記入해주시면 代金引換으로 適當한藥을付送합니다

今日 이新聞을보시고

帶封하야 五厘切手를붓처서東京市京橋區八丁堀三丁目命之母本舖로보내시는분과、또는 葉書로申込하시는분에게 三大醫學博士가指示하야編纂한 朝鮮語로 알기쉽게쓴 婦人病自宅治療書와 命之母의說明書를 누구에게든지 無代進呈합니다

婦人病良藥 ◯命之母의主治効能◯

月經不順 白帶下症
子宮出血 赤帶下症
下腹腰痛 手足冷症
頭痛眩氣 子宮痙攣
히스테리 輸卵管症
卵巢炎 貧血症

腦神經衰弱과產前產後의婦人에게大効함

=藥價=
六日分 壹圓
一二日分 貳圓
二〇日分 參圓
三五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八丁堀三
命之母本舖·笹岡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55)一八八七番

連載野談

布衾記 (六)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불탄금가락지(五)

공주가 즉위하시자 나라 사람들은 성조황고(聖祖皇姑)라는 존호(尊號)를 올렸다。

이것은 녀왕의 평소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고 총준하신성명을 사모하야 새로 신라나라를 빛내시는 어머니가되시란는 뜻이엇다。

녀왕께서는 즉위하신뒤 먼저 서조신사에 대제를 올리시고대종을 이으신것과 선왕의유명을 받들어 정면지제와 전쟁이없기를 긔도하셧다。

그리고 또한 여러 조신들을 불너 세우시고

「이세상 불상한 인생중에도특히 사나히로서 안해가업는사나히。녀자로서 남편이업는녀자。또는 자식이 업는사람。부모가업는사람。그만큼 더 불상한 인생이 또잇느냐。나라의곡식을 주어 배나 부르도록하여 주어라!。」

「성은(聖恩)이 망극하신것을알외오。」

「우리 백성들이 살기에 힘을 쓰는줄은 아나 무엇이 그다지 변변하랴。나라에 밧칠복식 일년어치를 구만두고 그것으로 밋천을 삼어서 살님을 느리라하여라!」

「성은이 망극하신것을 알외오。」

「분황사(芬皇寺) 공사를 속히끗내여 선왕(先王)의 위패를뫼서 재궁(梓宮)의만년의 안녕을 빌게하여다우!。」

「분부대로 거행할것을 알외오」

녀왕께서 이와가티 대사령(大赦令)과 은사령(恩賜令)을 내리시니 그성은을 칭송하는 소리가 방방곡곡에 팽자하엿다。

그리고 녀왕상변중정월에 분황사의 공사가 끗나니 이것을 나라사람들이 녀왕의 성덕을 노래하며 제각각 려사를 도온것이오 이 분황사는 황룡사와 가티 신라에 유명한 절이되엿다

때는 정히 녀왕오년중정월이엿다。

천지만물이 바야흐로 화창한것이 모두 녀왕의 성덕인듯하얏다。

어엽분 꽃송이처 송운 양으

하면서 수품은 머리를 백번이나 조으며 녀왕의 약하야지신 마음을 위로하야 드린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녀왕께서 망극하신 국상을 당하신후 항상 선왕의 회포를 흉중에 품으섯고 또는 신하들의「알음한층」을 흉측히 생각하시나 그래도 동긔간이 한분도 업스신것을 매양 외로히 생각하섯다。그런중 선왕의 다섯가지 유

로 한울거리고 게시옷은 봉새가 여민탁(哀民泰)을 알외는뜻 제재구리는 소리까지가 모두그러하엿다。

이때 녀왕께서는 상대등(上大等) 벼슬잇는 수품(水品)을 불너 세우시고 힘업스신 음음으로써。

「짐의 운명이 어이 이리 긔박한고?。선왕의 유명(遺命)을 받은것이 여러가지녜 그중에서 아즉 하나도 받들어 거행치못하고……。」

하시면서 매우 처량하신 비통을 나타내신다。

이와가티 처량하신 회포로서 수품에게 말슴하시는 뜻은 분명히 뒤일을 부탁하시려는것이엇다。

「상감마마 웨 이처럼 망극하신 분부를……。」

명을 귀이고 방울이 떼하시리다가 하시며 자연 국주에 피로하신 데가 만하셧다。

이것 저것이 모두 합쳐서 필경은 옥체가 미령하시게된이다。

그런데 화로의 줄시는 정령원주하신에 짝저 가시고 가진약을 쓰어나 병이어 못효하시엇다。

그래서 녀왕께서는 아마 회춘하시지못할것으로 짐작하시고 수품을 불르사 나랏일을 부탁하시려하섯다。

녀왕은 환후가 위중하신 소식이 차차 백성에게까지 알니

어 소리를 마치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흉흉소리가 팔봉사 동부터 흘너 나오다。

이것은 녀왕의 환후가 속히 회복되시기를 발원하는 흉흉소리다。

하 녀왕의 환후가 위중하시다는 소식이 넘니 들니자 황성에서는 백마대조(百馬大祖)를 올리고 인왕경(仁王經)을외우며。

「셔상(聖上)환후쾌차!」 성수무강!」

이 소리를 듯지에 부끄러운 …… 매 발원한다。

풍우의 탄우한 연긔는 풍실!。풍실!。

처마끗에 울경 소리는 쟁그랑!。쟁그랑!。

천지만물이 모두 그 …… 파가려 녀왕의 환후가 속히 회복되시기를 발원하는것 갓다

라디오

五日(火曜)

◇午後六時二五分 講演—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 遞信局 遞信局長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佛敎時報社 金泰洽
◇同八時 兒童愛護週間講演「第十回全國兒童愛護週間實施에對하야」 總督府社會課長 嚴昌燮
◇同八時三〇 流行歌外 一、赤靴歌 二、勃校歌 三、小春香 鄭山月 朴明月
◇同九時 野談이야기「赧話」 李承雨

第一放送

◇同九時三〇 唱劇調外 一、短歌「白髮歌」 二、唱劇調「沈淸歌中皇城올나가는데」 鼓手 李東伯 丁元燮
◇午後六時 (東)童話劇 端午의 名節 遠藤 春日子
◇同六時二五分 講演—京城에서全國中繼 朝鮮에잇서心田開發運動에對하야 朝鮮總督府學務局長 渡邊
◇同六時五五分 (東) 커렌토 토픽스
◇同七時三〇分 講演 兒童愛護의根本精神 京城帝國大學敎授 松月 秀雄
◇同八時 (大) 一、五月雨 라듸오風景二題
◇同八時三〇分 (東) 二、武者祭
◇同九時五分 (新) 라듸오劇—播送劇中에서中繼—

六日(水曜)

◇午後〇、〇五 古談 揀選士 朴東鉉
◇同三、一五分 講演 安在駿
◇同四、三〇 野球試合實況中繼 京城그라운드에서—
◇同六、三〇 關西大角力實況中繼 "鐵道對遞信" 野球가얏을때에는
◇同六、三〇 …… 一、序曲 魅惑島……콕크作曲 二、民謠 세가지 1、후니쿠리、후니쿠라……伊太利民謠 2、사라쿠치아……나폴리民謠 3、콘트라바디스타……西班牙民謠 三、介—벨트의幻想 四、小曲두가지 1、파이프를불고…柏木南天作曲 2、하이킹노래…古賀政男作曲
◇同六、五五 兒童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佛敎時報社 金泰洽

◇同八、講演"라고아의中心思想"梨專文科科長 金尙鎬
◇同八時三〇分 絃樂四重奏 一、絃樂四重奏曲 D長調 作品四第五番 第一樂章 알레그로모데라—토…하이든作曲 第二樂章 아다지오칸타빌레 第三樂章 메누엣토·알레그레토·트리오 第四樂章 떼빠ㅣ제 二、안단테·칸타빌레…차이코우스키作曲 第一빠이올린 桂貞植 第二빠이올린 朴泰洽 비 올 라 安聖敎 첼 로 金仁洙
◇同九時 歌謠曲外 一、가야금倂唱 二、短歌 三、流行歌 四、南道民謠 五、山念佛 六、雜歌 大笒 金永根 金玉仙 金浦打令
◇同九時三〇分 國樂 河龍男

第一放送 金壽男

◇午前六時三〇分 (東) 英語講座(三의二) 佐竹直重
◇同十時三〇分 (東) 家庭講座 醫學가오기까지府로는法(二) 醫學博士 橋本寬敏
◇午後二時 (東) 家庭講座 若松若太郞
◇同四時三〇分 野球試合實況(中繼日) 第二放送—京城球場에서中繼—(京城)
◇同六時二五分 關西大角力實況(野球放送後) 라듸오滑稽(釜山) 釜山公立幼稚園 兒童
◇同六時 兒童劇 鐵樓의뒷 東大門小學校 兒童
◇同六時二五分 (東) 基礎英語 講座(十) 關谷榮
◇同七時三〇分 講演 兒童愛護

七日(木曜)

◇同八時 (東) 城大敎授 醫學博士 土橋光太郞 예對하야
◇同八時 吹奏樂과軍歌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者樂長 岡田國一
◇同八時三五分 落語 柳亭燕路
◇同八時五〇分 (東) 浪花節 雜賀吹雲之作 武田富太郞
◇午後〇時〇五分 하와이안기타 一、파우오아·레포·포아 三、카리아·월스 四、푸아·오나오나 五、데스크린브·누하 六、하와이안키라—
◇同三時一五分 講演 (…) 宇田川
◇同四時三〇分 關西角力實況 京城府本町丁目角力場中繼

◇同六時三〇分 講法指導 敎育레코ー드倂用(第一回) 解說者 鄭寅燮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常識講演 여름에여재죽니는가 金鐘仁
◇同八時 兒童愛護週間講演 城大小兒科 李基寧
◇同八時三〇分 라듸오 드라마「玉圖」全一幕 【配役】 河明英…(劇研所 主)…金喜彰 河玉蓮…(明英의 妾)…金星子 金君史…(玉圖의弟長)…金仁濟 柳進燦…(金 先)…李汝植 人…… 蔣敬旭…(劇研究會)…崔得淸 效果 朴李一 … 如松水
◇同九時一五分 歌謠 一、乙…白頭調

第一放送

◇同九時三五分 報告 外 一、報告 二、새타령 三、六字배이 四、개고리打鈴 五、흥打鈴 大笒 文 明 山 卞 書 金 弄 永 紅 仙 根 玉 紅
◇午前六時三〇分 (東) 基礎英語 講座 (十一) 丸山順太郞
◇同一〇時三〇分 (東) 家庭講座 季節의野菜와果實의栽培 大阪放送營農研究會
◇午後〇時五分 (東) 井冊 一絃琴 計水
◇同二時 婦人의時間 須江嘉子
◇六時 (大) 音樂이야기
◇六時二五分 (東) 講演 農村의時間
◇同七時三〇分 (東) 人形淨瑠璃
◇同八時 (大)
◇同九時 (東) 講談 小金井蘆洲

映畵界揷話

키퉁君의痛事

【할리우드發同盟通信】 바스타—키통君은 요지음離婚의 訴訟事件에 證人으로出廷하려고 自動車를몰아 疾走中 넘어急하야서 들려時速七十哩를내다가 交通警官에게붓들리어 金五十弗也의 罰金處分을바덧다

娛樂

海外映畵消息

「西班牙」

去十月 딸제로나에서 上映된 스페인語映畵는 左記와갓다。

「金과銀」

칼멘·게레에로嬢과 프리오·뷔리아레알氏主演의 드라마띡한 映畵로 메시코의民謠가 만히包含되야잇다。(메시코映畵)

「푸라멘데라가아들을사다」

오노리오·마우리氏와 그레고리오·말리네스氏의 喜劇을 映畵化한것으로 카르리나·딸세나嬢 루이스·아룬소氏 루아나알카니스嬢 딸바라레오날드嬢프리오·메니아氏等이 出演 (米國폭스映畵)

「第四조로아라곤崖夫」

푸로리안·레이氏 監督, 임페리오·알헨티나嬢主演의 映畵로 알젠티나嬢의 노래의 魅力을 힘껏 發揮하얏고, 호타祭에는 만흔 民族舞踊이 揷入되얏다。미겔 리헤로氏, 페페·카리에氏 판·데·올도니아氏 비랄·무니요스嬢等이 助演하고 말리네스·이·리베라氏가 音樂을 擔當하야 西班牙映畵의大作이다(西, 시페사映畵)

「復活한樂園」

하뷔엘 구엘氏 監督의 레뷰映畵로 되토라스·뷔라氏의音樂이 愉快하다。主演者는 알데이氏 레페氏 안토니라·알젤(…)等이다。(西, 미렐비映畵)

「커다란伯父」

一九三五年미스카탈로니아로 明星에서 有名한 호세 가스탈리안스와 카시아·알바레스合作의 喜劇을 캬메라化한것으로 主役에는 라파엘·알코스氏가 扮하얏다。(西시피映畵)

去十一月 딸셀로나에서 上映한 스페인語 映畵는 다음과갓다

「邪惡한카르멘」

스페인現代의 가장 有名한小說家의 한사람인 웬세스라오·펠난데스·풀로렌스氏의 同名의小說을 映畵化한것으로 諷刺와 諧謔이가득하다。主演者는 안토니다 코로메嬢안토니오·뷔코氏 안토니오·아랄콘氏等이요 監督은 에두칼·네뷔라에氏다。(西,우린필映畵)

「로사리오農場主」

안달샤의 아름다운 風景을 背景으로한 悲劇인데 레온·알토라氏 監督아래에 스트렐리타·카스트로嬢 엘바·로이嬢 라파엘·도우란氏 알루렌드·쿠퀴라氏等이 出演(西,쿤사레스映畵)

「나는 男子요—」

칼로스·알니체스氏의 喜劇을베니트·페로호氏가映畵化한것으로 主演者는 바레리아노·레온氏 마리아·뷔레리양等(西,시페사映畵)

「마드레 알레그리아」

펠난데스·세뷔리아·이·세롤베다氏의 戱曲을 映畵化한것으로 監督者는 가스팔·칼포스氏 아나·레이바嬢 라켈·로드리고嬢 리카드·누니요스氏 等(西, 데이아나映畵)

「라드로란」

探偵劇的 喜劇으로 파코·에리아스氏가 脚色 監督하야 쓴 이야기를 파코氏自身이 監督한것이다。音樂은 리스카노, 데, 라, 로사氏가 擔當하얏스며 主役은 페레스, 데, 보레스氏와 안토니아, 코로메嬢 助演으로 뷔리야, 시울氏와 로마, 라에氏다 (西, 시페사映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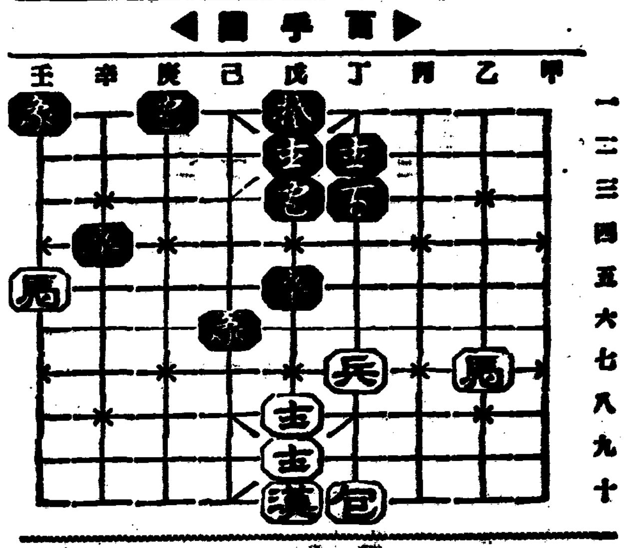
「가면은 동키런」

알니체스氏와 에스트레메라氏의 喜劇을 映畵化한것。알폰소, 무니요스氏와 아나, 마리아, 쿠스트데이오嬢이 主演(西國몬포노映畵)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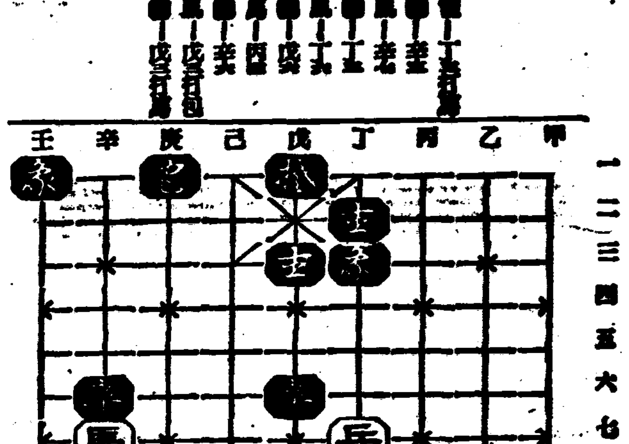
先手 李在鳳 對 李明輝

◀百手圖▶



◀百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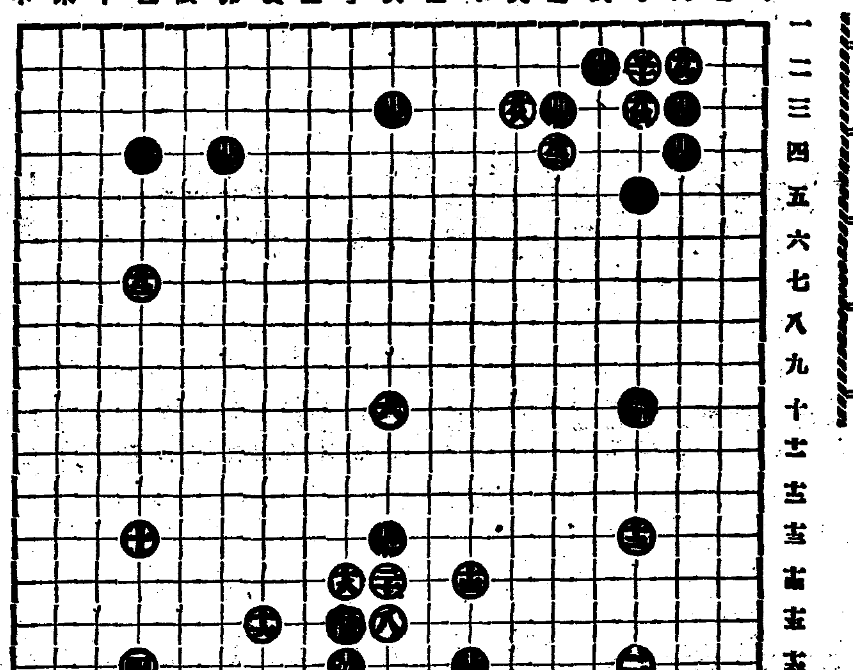
[illegibl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2—

白 丁奎春
黑先 任佑植

●	十七	子의十五
○	十八	子의十四
●	十九	子의十六
○	二十	癸의十四
●	二十一	癸의三
○	二十二	巳의七
●	二十三	卯의四
○	二十四	丁의三
●	二十五	丙의三
○	二十六	丙의二
●	二十七	丙의四
○	二十八	庚의三
●	二十九	戊의二
○	三十	丁의二
●	三十一	己의三
○	三十二	戊의四



蔡極文氏日評

黑이 子의十五로 挾擊한후 白이 子의十四로 斷點을 試하려지 丑의十五로 延하야 方便을 取하이 可할듯 白已의七을 黑이 卯의四로 應함이 亦是相當하고 白의丁의三入着이 此亦 局面時機다 黑이 丙三의 對應함을 白이 戊의二로 利着함이 普通慣例요 庚의三로 近似하나 戊의二보다 便宜上不及으로 看取하노라

帝王의道

빨다드와 페시아灣의 사이를 守備하는 英國騎兵의 一聯隊에서 發生한 이야기——

英國에 對하야 叛旗를든 아고운이 紳鍾한 城塞를 驅伐하고자 聯隊長 스탁大佐는 必死의 努力을 하는中 새로히 赴任해온 부렌트中尉를 마지하얏다。그는일즉이 아고운이 叛旗를 처음으로 듬고 이러설때 軍法會議에 부치게 되얏섯스나 無罪가 證明되얏다 시放免된것이다。大佐의 夫人쪼이스는 부렌트中尉를 처음 만나자 얼골이 새파라케 질리엇다。그도 그럴것이 그는 곳 그夫人의 새시적 戀人이다。그러나 運命의 작난은 夫人의 손에 쥐인 카드짝에依하야 大尉로하야금 城塞偵察의 決死的길을 떠나기로 決定되얏다。最後의 작별을 悔하야 暫間 夫人의房으로 들어서지 步哨의 兵士들에게 위삿이어 꼼작달삭을 못하게되얏다。부렌트中尉대신그兄의다니엘이 城塞偵察을 나갓다가 負傷하고 돌아왓다。부렌트中尉는 夫人으로 因하야 恥辱을 참고잇다가 그이븐날의防害로 말미아마 如意치못하얏다。大佐는 中尉를불러내여 叛逆者라는 罪名아래 銃殺을 命하얏다。들가오레서는 毅然한 銃聲이 일어난다。그러나 그것은 中尉를 죽이려는 銃소리가 아니요 아고운一黨이 처들어오는 銃소리다。아고운은 中尉의勇敢한行動아래 고만 죽어버리엇스나 大佐는이통에 重傷을 當하얏다。케레폰·나되와피어·리샬·월리主演이니 나되는桃源境 피엘은外人部隊, 모스코의하로밤等으로 이미 定評이잇는 名優요 監督은 팔렉, 렘비에니요佛國映界의 巨物이다。

※曆※

五月六日(水)
閏三月十四日壬辰(十六日)
戊子·火·箕·危
●祭祀에宜함
●立夏五月六日(午十六日)

家庭醫學

青年期의 結核에는 進行性의 것이 만타

그容態와療養上의諸注意

青年期에잇는男女에 結核이만흔것은다아는事實로 不如歸의浪子夫人이나、쏘루게네푸의「그날前夜」의인자로흘 連想안는다도우리가서로、自己의知己나交友中에서 結核때문에苦悶하는數多한悲劇을들을수가잇는것이다。

무슨때문에 青年期에는、그와가티肺結核이 만흔가、또는그肺結核은엇더한性質을갓고잇는것이가?이러한問題에잇서、最初에그研究를發表한것은

研究를發表한것은

獨逸病理解剖學의泰斗아쇼푸博士이다、아쇼푸博士의結論은

—青年期의 肺結核病은 濕한 滲出性을呈하는傾向이잇는故로進行性이 기쉬우며、따라서死亡率도 놉허진다。

라고하엿다。

이아쇼푸博士의說에依하야그後 만흔學者가、왜?青年期의結核이 滲出性을 나타내기쉬운가하는것을、그各自의立場에서 考察하야 여러가지의說을發表하엿다。그에는青年期에잇서서는、神經系統의緊張을招來키쉽고、그것이原因이되야、滲出性에 기울니게된다고說破。또한青年期의

特殊한內分泌關係가

罹患키쉬운要因이라고하는說、다시、全身또는局所가青年期에잇서서는結核菌에對하야抵抗力이弱한것이라고主張하는說等、여러가지가잇다。

이런等의學者의專門的說은제처노코라도、如何튼青年期에는 前述한諸說과가티여러가지原因으로부터 抵抗力이 低下하야、結核菌에對한가장不利한狀態에잇는것과、또는一旦發病하면菌이漸次로組織을犯하야、病竈를擴大하며、病의進

行이쉬하다고하는것은틀니지안는다。

以上目的에依하야「錠劑わかもと」는 服用이 만히要求되며、患者사이에實用되고잇다。「錠劑わかもと」의特色이되는것은、胃腸本來의消化吸收를活潑케함과同時에結核菌에對하야서도그勢力을排絶식히는活動의成分을包含하고잇는點이다即、多種의活性酵素와비타민、아미노酸等의綜合的作用에依하야、胃腸을비롯하야衰弱된患者의

안방療法、日光浴療法

等의어느거나、이自然治癒을目的으로잣지아니하면안된다。어느거나 擺築한療法인바、近頃에는

잣에서 體內榮養을充實히하야抵抗力을놉게하며、自然治癒를促進토록努力하지안흐면안하여서는안된다。

現在、널니提唱되고잇는榮養療法、

핵菌의 被膜이 되는 壁狀物質을 溶解식히는作用이 잇다。구리코ー겐은結核菌의毒素를解消식히는 所謂의 活動을 수케하는作用이잇다。

따라서進行性을 놀키쉬운靑年期의 結核도、胃腸이 强化되야、榮養이充實하야、自然治癒力이 增强되는 結果로써 菌의 勢力이 排絶되야、여러가지의症狀도恢復케되는것은 當然한일이다、結核의治療에 對하야、綜合效果를가진藥으로써、推奬되고잇다

또한그中에包含되여파一제는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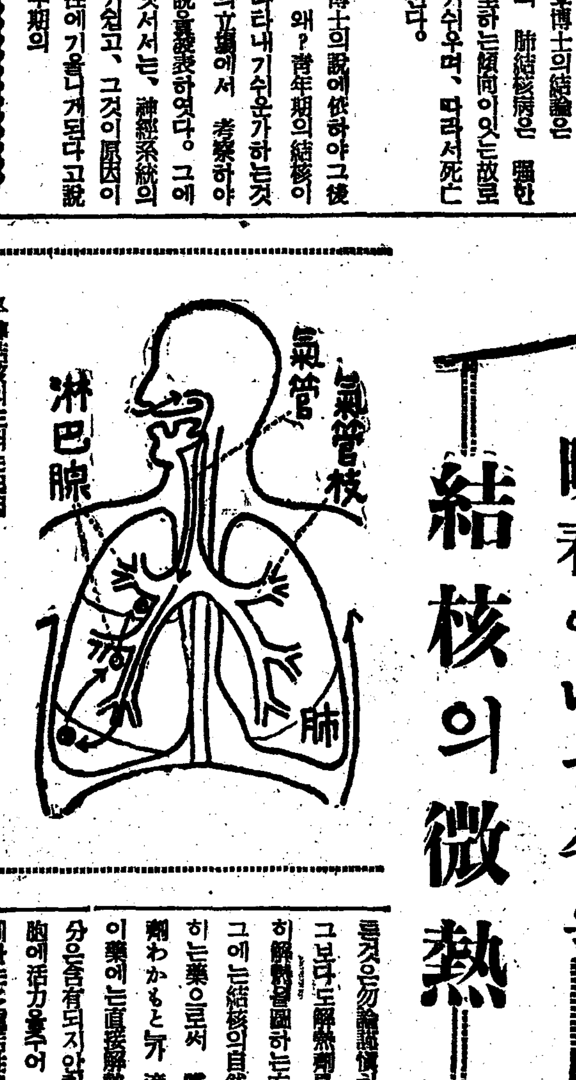
의組織細胞에 活力을 給與하야、白血球를 增殖식히며、抵抗力을强化한다。

食慾이不振하는분에게!

食慾不振은、精神作用에도左右되는일이지만、그最大原因은、大槪의 경우消化器의 衰弱에서、特히結核患者에서는 肺病的의 食慾中樞에 미치기때문에 胃腸이弱하고、또 原因을 除去하지안는한、藥으로써 消化劑를 나도 效果를볼수업다。

그런데 「錠劑わかもと」中에는 구리코ー겐이 함유되어 빙원의 醫學者 블라스博士가 「食慾素」라고 불르고잇는 것이다、「錠劑わかもと」는 그效果가 顯著하야、其他消化를 돕는 增進作用이잇고 胃腸機能的으로 强하케、結核菌의 毒素를 解消하는 有効成分까지 含有되야잇습으로、結核患者의食慾不振에 服用하면 效果가 特殊하다。

晚春에나기쉬운 結核의微熱



※肺結核의主되는經因

結核菌이들어가되면 主로肺의 淋巴腺에 結核을짓는바、그中의 自然治癒力이 衰치안흐면 九割九分은 그狀態에治癒된다。衰弱된自然治癒力을 旺盛케하는것으로 널니알여진것은「錠劑わかもと」이다。

(矢印은結核菌의移動하는方向)

草木이 움트는季節은、오직草木뿐만아니라、모든 生物의身體에 엇더한變化가 잇는것이다。結核患者에는、겨울에

平熱

이든것이、다시 微熱이 생기나는일이만타。이것도 氣候의變化에依한影響이라고볼수잇는것이라고볼수잇다。

結核의熱은、結核菌의毒素와結核菌의 異常代謝物이 血液中에移行되야、腦髓中에잇서、體溫을左右하는 腦下垂體에 作用하야 溫中樞가 攪亂되야、熱이나지안는것이며體內에잇는 結核菌의 毒素가減하여진때문은아니다。解熱劑를쓴다하여도 다시 熱이나게된다。그런데解熱劑는 胃腸을害치는副作用이잇서、도잇슴으로서、適用하면 食慾을減退식혀 衰弱을加하는한原因이되는것이다。

解熱

劑는以上과가튼 弊害가잇슴으로 이서서必要한일이지만 結核患者에 藥을나리게하는것은 씨、自己도解熱劑를服用하는일이가

튼것은勿論譴責치안허서는안된다 그보다도解熱劑를쓰지안코、自然히解熱을圖하는方法을取할것이다 그에는結核의自然治癒를 促進식히는藥으로서 實用되고잇는「錠劑わかもと」가 適用된다。

이藥에는直接解熱作用이잇는 成分은含有되지안하잇지만、全身의細胞에活力을주어 新陳代謝를活潑케하는多種의活性酵素와 結核菌때문에 身體가衰弱하여진것을恢復식히는데不可缺의榮養素 蛋白(아미노酸)칼슘、비타민A、B、C等이含有되여잇는 此等綜合效果에依하야 自然治癒力이促進되야、結核菌의勢力이衰하고—即、結核이治癒되면

治癒

에따르는必然의結果로서 熱도下降된다。

結核에特效藥의發見이되지못하고잇는今日에、이와가튼綜合療法劑를服用하야 熱을나리게하야、病勢를 解熱식히는것은、結核의病理로보아서도가장理想에適合한療法이라고할수잇다。

더욱이「錠劑わかもと」는東京帝大內科와本舖營養研究部의共同研究(公衆衛生學會特別講演)에서 三百餘人、千餘人一一日藥量五六錠(小兒에는三錠)의服藥의效果를實驗함의 結果가 明確하야 (脈搏、熱、ー、體重增加量) 新藥에도 決치안는藥이다。今日數多의 藥店에있습니다

肺炎가다루

胃아토니ー를併發하야

(岡山) 中川茂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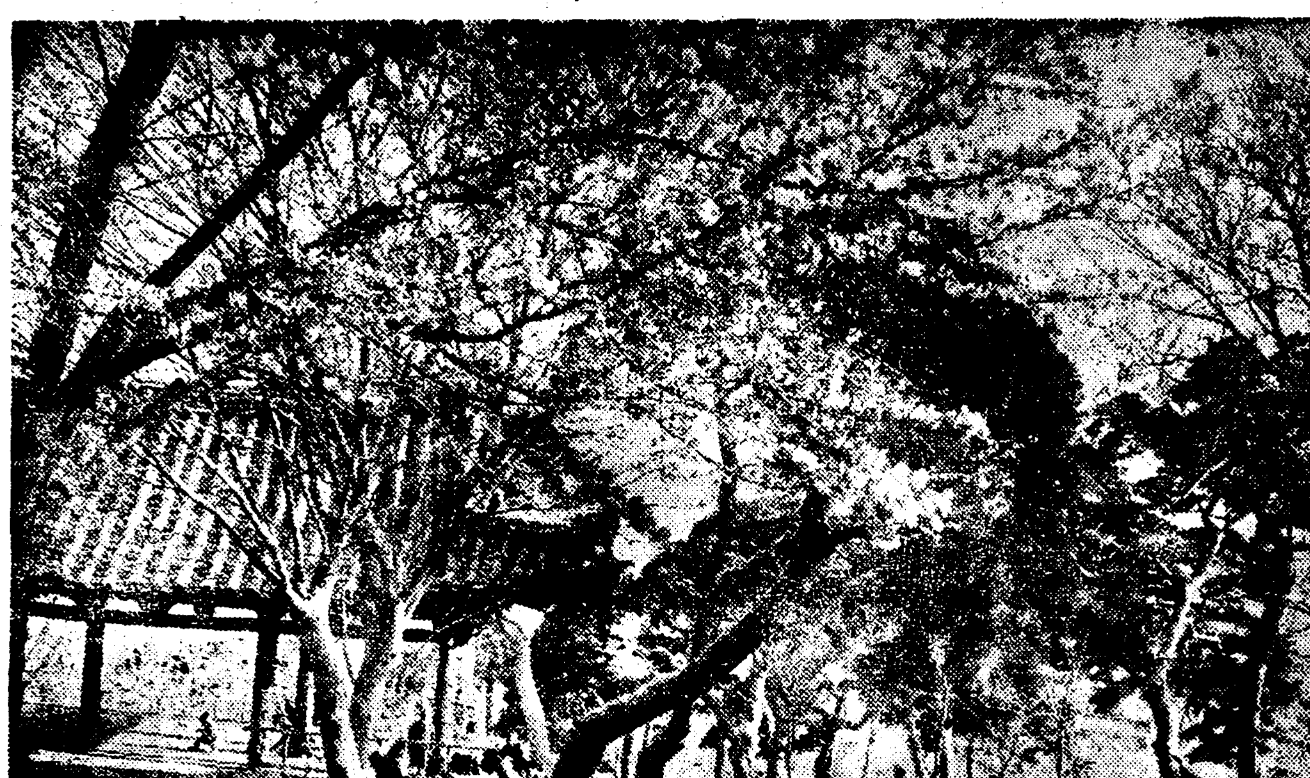
저는再昨年病에걸려、最初에는 젓 大阪每日新聞에廣告에肋膜으로發病하여 十四日毎日胃痛을惹起하면 「錠劑わかもと」의卓越한것을 서도感에出動하든바、初夏부터 肺病으로 弊見하고、服用하여든바、그해 胸痛을이르키며、雖吸이나고 는즈올에×週間잠지나든디食慾身體에倦怠를感하게되는故로、도適通되고、步行도그러케苦痛 그聞에의診察을바든바、助膜炎을發生치안코、얼마안되여會社에 이라고하는病名을듯게되야、시出勤하게되여、그때에는病이나 可愛한에가서內科專門의博士에診 갓다 (中略) 肺炎도胃아토니 나!氏이라고診察하고、當時(?) 察을바든結果肺炎가다루及야로 用하엿든바、只今은폐이나아졋 굴醫師에는安心되지안키에、空하여健康한그날그날을보내며、 는現常이되엇다。 이것도「錠劑わかもと」의恩惠이 (中略) 여러가지藥等도服用 라고감사지마지안는바 (後略) 하여보앗지만하等效가업고、마

卅餘名反滿軍襲擊
十餘同胞一時射殺
松花江下流湯原縣韓家屯서
住家엔衝火家資掠奪

【哈爾賓】 湯原縣 … 同胞 … 十餘名을 一時에 射殺하고 住家에 衝火하야 家資를 掠奪하야 가지고 달아낫다 한다

虐殺宣言撒布나
避難못해이逢變
依蘭民會서僅僅뒷收拾

東明講習所를 簡易校로昇格


◇…北國의 느진봄 (江西名勝西一樓의所見)

金組長爭奪劇과
邑當局者의橫暴
傍聽記者에게暴行코告訴當해
—事態의發展을注視—

德川郡下火災 小兒燒死

輯安縣避難民에게 營農費用을貸付

永興地方을中心으로 各洞에染病猖獗
벌서死亡者도多數

호떡먹다卽死 【江華】

市區改正立案
躍進하는寧越

人蔘都市開城에
京城藥專移轉說
府當局極秘密裡에交涉中으로
實現可能性이九〇%

羅南高等女校 英語正科廢止

基督教全南最高機關
全南老會開催
五月八日潭陽에서

어린이날을記念 小兒無料診察

末世紀的悖倫劇
돈二圓이問題가되여 從兄弟間訴訟절까지

六十餘名應募 書記七名募集에

地方人事

防疫陣내몰라라
痘神은依然跋扈

鏡城市內에서는 罹災死亡者續出
市民愁雲에싸여戰戰

江華郡下에도 依然罹患繼續

羅津市內에도 患者續續發生

千餘圓을收合하고 學院增築에出役
新興杏洞民의敎育熱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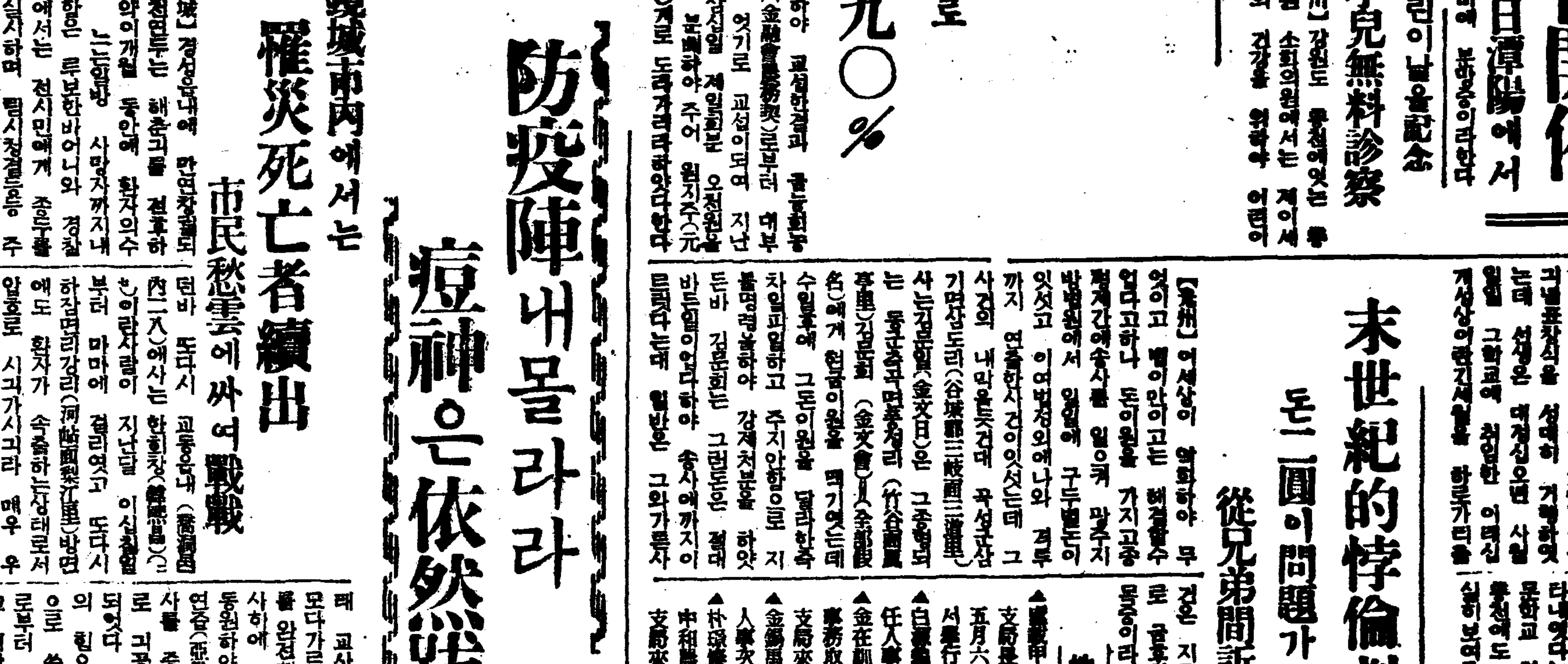
光州支局
位置 光州府內
支局長 崔仁植
右依願解任
支局長 張鎭仕
右任支局長

運餉分局
位置 龍川郡運餉市
分局長 張基敎
右依願解任
分局長 金甲錄
右任分局長

謹告

奉天支局
總務兼記者 金奎植
右新任

愛慾의彼岸 【6】
李光洙 作
金康穆 畵



"低金利의 影響"
銀行預金에 여다가 土地에 投資하야될가
●……申 泰 翊

今年一月에 數字上 實地에 잇서서 이것을 다음과 가티 訂正하야 畓一斗落의 收穫인 正租籾石을 半식 分配하야 地主의分 一石 卽 正租一斤을 入籾의時價로 잡고 二百斤의 一石 十六圓이 地主로서 取得하는것이 되고 다시 그中에서 地主의負擔公課金其他의項目을 三圓五十錢으로 잡고서 이것을 빼이면 그殘은 十二圓五十錢이다 그런데 이것은 二百圓이라 주고 산것임으로 百圓에 對한利益을 알랴고 하면 그 十二圓五十錢을 二로 除算하여야만 된다 어떠케하면 배 떠러지는 數字는 六圓二十五錢 卽 六分二厘五毛의利潤가 된다。

(16.00—3.50)÷2=6.25錢

그러나 이것은 計算하기爲하야 方便上 一標準을 求한것에 不過하다 그럼으로 實際에잇서서는 六分二厘五毛以上 乃至七分에 達할것이며 그러치안코 드러스는 不然할것이며 利潤을 내일마한곳도 잇을것이다 이런때 共同의標準點은 以上의 六分二厘五毛를 너머서 大體六分五厘로 하였다。

그러면 銀行의 定期預金利率이 今日 大體 年三分五厘에 不過하니 土地에 投資하는것이 훨씬 利益이 잇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래서 이 土地를 사고 銀行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利率이 높다는 것이다。

×

지금까지는 돈을 가진사람들이 銀行에 定期預金을하야 利子를 밧어 生活하여왔다。그런데 低金利時代에 잇서서는 銀行預金보다 土地를 사서 그利潤을 取하는 것이 利益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그러면 銀行의 貸出利率은 어떠케되엿는가 함을 보자。

(一)商業手形에 對한 普通銀行의 貸出利率은 日步一錢七厘(年利六分二厘)로 되어 그럼으로 銀行에서 百圓을 빌리면 一年에 六圓二十錢을 내이면 된다。

(二)不動産貸付에 잇서서는 現在 金融組合의 不動産貸出利率은 七分三厘로되어 ……

今年의 養蠶業 大體好勢로 打診
繭價七百圓臺、米國需要活況 桑害업고、順調掃立?

新綠의 季節에 들어가며 農家에서는 養蠶準備에 奔忙케되엿는데 今年의 朝鮮蠶業界는 大體로 昨年보다 못하지안은好勢를 보일모양이다。卽 繭價는 現在 七百圓臺에잇고 米國側의需要도 前年보다 못하지안을터에 日本內地에서는 蠶事에 桑害가 잇서서 이미 春繭一割減産의豫定이잇서 春繭市勢에는 벌서부터 强材를 提供하고잇스며 朝鮮側은 昨冬의 凍害가 잇섯스나 現在의 各道報告에 依하면 桑害는 別로업다하며 大體로는 順調로운 모양이다 그러고 春蠶의掃立枚數는 昨年의 六十三萬枚에 對하야 約一割增이 豫想되며 七十萬枚假量 準備가 되어잇는데 繭價는 昨年과 마찬가지로 一圓六十錢으로 決定을보앗다 農家에서도 昨年에 繭價의 昂騰으로 不少한 利가 잇섯든마큼 今年은 蠶業이 더욱 旺盛할모양으로 蠶業界는 벌서부터 活氣를 띄우고잇다。

中規模經營有利
精繭一貫生産平均價와 販賣平均價로본計算

繭生産費에 對하야 總督府에서는 昭和八年以來 繭價調査中인데 最近決定된昭和九年度의 生産費調査에 依하면 全朝鮮調査戶數는 百七十餘戶로 이를四類로 分하야 一、特大規模는 十枚以上 二、大規模는十枚未滿五枚以上 三、中規模는五枚未滿二枚以上 四、小規模는二枚未滿으로하고 精繭一貫匁의生産費를보면 精繭一貫匁의生産費總平均은 一圓六十三錢(春繭一圓五十九錢 夏秋繭一圓六十九錢)이고 販賣價格總平均은二圓八十錢(春繭一圓八十六錢 夏秋繭一圓七十四錢)으로 이어서 差額純益金(對精繭一貫匁의 勞動報酬) 總平均十七錢(春繭二十七錢 夏秋繭五錢)인데 規模別로보면

	生産費	繭價	純利
特大	一、六〇圓	一、八〇圓	〇、二〇圓
大	一、六〇	一、八〇	〇、二〇
中	一、五〇	一、八〇	〇、三〇
小	一、六六	一、七九	〇、一三
平均	一、六三	一、八〇	〇、一七

으로 結局은 中規模가 第一有利한狀態이다 그런데 이와가티 規模別로보아 純利의差가 잇는 것은 大規模以上에는 傭人勞賃을 加算하고 그以下는 企業者自己勞力에 依한것으로依한關係도잇스나 現在의 朝鮮農村事情으로보면 中規模로하는것이 第一有利할것으로 小規模經營도 中規模로하도록 奬勵하는中에잇고 또昨年度의 生産費는 아직調査가안되엿스나 生産費가 多少낫을것이라해도 繭價가 二圓五十錢乃至 三圓이엇슴으로 더욱方利하엿슬것이다

倫敦金塊急落
京城市中도低落

倫敦金塊五日入電은 一온스七磅四片으로 比前日一畢六片의 急落으로 換算一匁十四圓四十七錢인五錢低이엇스며 京城市中金價는 賣一匁十二圓三十錢 買十二圓十錢으로 各十錢低이엇다

殖銀과東拓 不動産貸利下
最低七分八厘로引下
◇…五月一日부터實施

殖銀及東拓에서는 最近新規長期貸金部에對하야 利下를하야 低金利時代에 順應하엿는데 日本內地勸銀農銀이 다시 旣往貸付의 利下를 하게되엿슴에 追隨하야 兩者間 協議中 七分八厘以上의것을 全部 最低七分八厘로利下하기로 決定하고 五日 그旨를 發表하야 五月一日에 溯及實施키로하엿다고한다

今回의 利下는 旣往貸付의 一部分에만 對한것이 아니고 旣往貸付 全部에 適用하야 引下한것이다

最近金利低落으로 從來의 政策의 利下를 하게되엿슴에 公債와 其他의 償還을 通하야 銀行條件이 相當히 낮아지는 것이다

約一千五百萬圓
七分八厘의것

殖銀及東拓에서는 旣往不動産貸中七分八厘以上의것을 七分八厘로 引下하얏는데 殖銀의七分八厘以上의 貸付는 約一千萬圓 東拓約五百萬圓 合計一千五百萬圓에 達하며 此等旣往貸付中最多는八分八厘의것임으로 今回의 利下는 平均一分의 利下로될터

南洋進出
朝鮮産品
南關稅察計畫

朝鮮商品의 新販路로서 南洋市場은 洋洋한 將來를가지고 現在海産、珠瑯、籠球、綿絲布等의 諸商品은進出이 激增中임으로 朝鮮商品의 南洋擴充을 目標로 釜山商工會議所에서는七月上旬부터 二個月間에 亘하야 南洋商品視察團을 派遣할計畫이 進行中인데 總督府殖産局에서도 南洋朝鮮産의 將來性에 着眼하야 이市場開拓을 目標로 具體的計畫을 硏究中임으로 이釜山商議의 計畫과呼應하야 商工課 石井技師를 來七月上旬부터 九月에亘하야 約七十日間出張케하야 南洋各地의 市場情勢 商品販路其他를 자세히 觀察케하기로 大體內定하얏다한다

이오 東하야 殖銀、東拓의 利下에 依한 影響은相當히 大할것인反面으로서 地方의利子가 그만큼 나려간다

四年間對滿投資
總七億八千餘萬圓

【東京電話同盟】滿洲國內開發의 大陸政策遂行決意는 最近 不拾의 狀態에잇는 日本對滿出資의 動向에 압흐로 어떠한 效果가 잇을는지 一般이 興味를끄는바 四日 某權威筋의 發表에 依한 滿洲事件以來 昭和十年까지의 四個年間 對滿投資額과 그內容을 보면 다음과 가티 總計 七億八千八百四十萬四千圓의 巨額에 達하는데 今後의 對滿投資再活動에 對하야 有力한 參考資料로 본다 (以下單位千圓)

▲昭和七年	
滿鐵株式拂込金額	二五、〇〇〇
同社債純增加額	六九、四七五
同關係會社拂込額	二五〇
▲昭和八年	
建國公債	三〇、〇〇〇
株式投資	一〇、五一七
社債投資	一三、七八二
滿洲國內會社株式社債讓渡	五、三二二
支店銀行會社	五、五〇六
合資合名會社	六三六
日本國債債讓渡	一九一
▲昭和九年	
對滿投資回收總計	[illegible]
社債投資	一八、七一五
株式投資	五三、三六〇
▲昭和十年	
對滿投資回收總計	九、三七四
株式關係純拂込高	四九、九九〇
社債純募集高	一五五、八八〇
北滿讓渡國債	六〇、〇〇〇
不產動擔保貸付金	八、四九〇
總計	七八八、四〇四

米日爲替暴騰
【東京四日發同盟】四日의米日爲替는 休日 前日에 比하면 賣二十九弗五仙으로 十二仙高 買二十九弗二仙으로十二仙高

▲東京爲替(五日)
對米 賣買 二十九弗十六分十五 / 二十八弗十六分十五
對英 賣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 一志二片十六分一

▲大阪爲替(五日)
對米 賣買 二十九弗八分七 / 二十八弗十六分十五
對英 賣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 一志二片十六分一

銀行證券所持少減
四月末現在의 京城組合銀行의有價證券所持高는 二億四千四十一萬一千圓으로 前月에 比하야 四百二十萬圓減少이다

"쌀이 풀닌다"
各港에滯貨山積!

朝鮮米의 日本內地移出은 市勢高와 日本內地消費都市의 品薄等을 定期側의 渡米準備도 當用側의 實需買物等이 殺到되어오레가마에 活氣를呈하는中인데이 結果 各港共히 中旬까지의 輸送米가 鎭南浦의 四萬石을 비롯하야 仁川、群山의 各三萬石零多數의 滯貨를 生하야 各荷主는 船腹의 準備에 腐心하얏다。

運賃低때문에
臨時配船皆無

最近各港의 移出朝鮮米의 滯貨狀況에 對하야 朝郵에서는如左히 말한다

目下 海運界는 用船의 價上 北洋材搬取其他全般的으로 海運界가 好轉되어 定期船以外 船舶의 配船은 絶無狀態이오 今後도 運賃의 引上이 업는限臨時配船은 困難할것이다 從하야 各港에 滯貨되는 朝鮮米의 輸送도 不圓滑을 難免할것으로 現在 朝郵와 如한 代理店의 要望에 依하야 最近五千噸型一隻을 大阪受取 鎭南浦經東京返航으로 往復船共히 滿船임에 不拘코 三千五百圓餘의損失을 보고잇는 例가잇서 配船이 困難한 情勢이라 한다

移出港在米
百六十六萬石

全朝鮮主要移出港의 三月末日現在의 在米高는 百六十六萬五千九百二十二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十二萬七千百四十石의 增 四月末에 比하야 八萬九百七十五石의 減少를 示한다 (以下單位石)

日本內地米	一、五九九
正米	五二〇、七五六
玄米	一、〇六六、二四五
白米	七二、八七五
叺入米	四、四五六
合計	一、六六五、九二二
各港別內譯은 如左하다	
▲釜山	
正租	六四、四四〇
玄米	一八八、二五七
白米	二六、三六三
叺入米	四八
計	二七九、一〇八
▲馬山	
正租	二〇、九七〇
玄米	二六、三一〇
白米	六、九二〇
計	五四、二〇〇
▲麗水	
正租	一五、九〇一
玄米	二三、八九五
白米	二、〇〇〇
▲木浦	
計	四一、七九六
正租	四三、〇八六
玄米	一一五、一三三
白米	三三五〇
計	一五八、六七一
▲群山	
正租	三一、一三二
玄米	一九五、二五一
白米	二、七九七
計	二三〇、一八五
▲江景	
正租	三二、三一七
玄米	二一、七七一
白米	三、〇〇〇
計	四四、三九八
▲仁川	
日本內地米	一、五九九
正租	二三〇、一八〇
玄米	三三八、一六七
白米	四、四〇八
叺入米	二、〇〇〇
計	三六四、六五五
▲鎭南浦	
正租	一八九、四〇一

米倉의在庫高
百十三萬餘石

米倉株式會社의 四日現在在庫高는百十三萬二千三百一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十萬二千百四十二石 前月에比하야 三萬六千七百三十四石의 各增加이라한다

釜山	二〇五、二〇一石
馬山	一二三、〇五四
麗水	一〇、〇四五
木浦	一〇二、四一二
群山	一七五、五三五
江景	三〇、二四一
仁川	三一四、九二二
鎭南浦	二四四、八二二
元山	一五、〇六八

株式 日産獨高 堅强

商況(五日)

前場區區 今前場은 東新低、日産高等區區한 商狀이엇스니 卽昨後引에 比하야 東新六十錢低인 百二十九圓七十錢、大新十錢高인 七十五圓六十錢、日産八十錢高인 六十九圓四十錢 拓新二十圓七十錢에 各大引되고

○低金利바람에 맥혀하기 조라고 뛰어서는 큰일

○殖銀과 東拓은 旣往不動産貸付도 七分八厘로 一律利下 八分八厘것도 마라하니 一分引下인세음

○女工數가 좀 늘어겟지 紡績의 七千五百萬圓也 이巨額投資로써 朝鮮內投資만하여 勿論

○ 給쟁이 小農들은 米價高에 울고있다 米價高로 景氣를 謳歌하는者와는 딴세상에서사는세음

日産의强氣觀

今前場東日産은 東新低에 不拘코 六十九圓八十錢의 高價가 잇서 七十圓臺에 肉迫하엿는데 産業統制는 어느程度로할지 問題이나 當初宣傳하든것과는 달느며 增稅도 産業發展을 助長하야 인프레景氣를 喚起하니 悲觀할것이 업스며 押目買一貫이라는 强氣는 日産에對하야서도 如左히 말하고잇다。

日産七十圓은 머리가 무거우나 産金買上價 引上期接近과 自動車工業法案의 提出具體化로 氣味가조코 日銀도 配當抑制가 업고 一割四分据置는 確定的으로 보이어 緊張味가 업지안타 鮎川社長은『인제두고 보아라 明朗活潑케된다』고 壯談하고 鎔鑛積換工作에 努力한다니 時日을지내면 眞價를 發揮케될것이다云云

큰期待는잘못

議會에서도 結局은 別로 惡材料가 업슬것이고 ……

百三十圓再割

一日東京東新이 百三十一圓四十錢으로 四月十六日의 百三十一圓三十錢을 上廻하야 强氣가 올보이기는 하얏스나 高價買物이 不續하고 今前場에는 六日부터 本格的實際戰이 열닌것으로 議會金融難으로 人氣가 弱하야 押目買一員이 一割八分이 남는 程度이다

後場日産高

七十圓의 吳當을 넘보하야 好勢이엇스니 卽東新百三十圓四十錢 日産七十圓二十錢 大新七十五圓七十錢 鐘新百五十一圓八十錢 鐘新二十七圓二十錢에 各大引

東新二十七圓高 鐘新百五十錢 六十錢이엇다

取引停止 (五月一日)
▲金泉郡金泉邑本町 一丁目 七番地 井上宗太郞 ▲京城府本町 一丁目四番地 橋本

經濟界消息

▲朝鮮殖銀債券買入=朝鮮殖産銀行은 今回起債引受로決定한 朝鮮殖銀債券 四分三厘債券十萬圓乃至十五萬圓買入키로決定하얏다고

經濟寸鐵

先高觀測으로 잔뜩 가루어둔 어떤 쌀이 올넌다고 大地主大商人의 주머니가 불룩。

果然議會가 好調인 材料를 提供케될것이지 二、二六事件內容의 發表로 政府의 施政에는 肅軍의 態勢가 엿보이는 만큼 非常時에 있어 一般 議會에서는 强硬한 論戰이 잇슬것을 期待하는 者가 만타。

大衆課稅에 對하야 軍部에서反對한다는 소리가잇고 議會가어떠케 되든지 大體로 惡材料는 업슬것이다

實物前場取引

取引高 一四〇枚

▲大同電力三〇 ▲東洋拓殖三〇 ▲新興人絹三〇 ▲東水電製鐵三〇 ▲浦賀船渠十三〇 ▲入道羊毛十三〇 ▲新二三〇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〇、六〇	
一回四分利	一〇〇、九五	
二回四分利	一〇〇、九五	
佛貨四分利	一九八、三〇	

期米 强堅裡에 保勢

前場續軟 昨後場阪地三十二圓九十一錢止와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九十錢인 一丁反落을 補하고 三十二圓五十錢인 五丁低로 場當始한 後 阪地九十八錢으로 返戾하엿다가 九十二錢으로 反落 止場하엿다가 五十六錢으로 小戾하야 五十二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少高 後場은 五十二圓五十二錢에 同價始場後 五四、五十七錢 五十六錢에 少堅이고 五十七錢에 止場하얏다

七限의本舞臺
兩方暗中活躍

新甫七月限은 前天災期에 終幕을 告하게되는가장 波瀾性을 含有한限米로서 發會後三十餘丁의 反高를 示하엿다 依然二十餘丁의 反落을 告하엿다 實로 硬軟兩方은 七限戰의本舞臺에 올은만큼 可謂縱橫의 血戰을 開始할 것처럼 暗中活躍이 猛烈한모양이다 阪地潮先一派와 其他地場一派에는 當月부터 買戰線에 立하야 絶對賣方을 征服하려는 氣勢를 보이고잇스며 反面의 馬越、田中眞等唯一한 賣派는 一時傍觀的態度를 取하여오다가 阪地三十三圓臺에는 防戰不急하는 光景으로 三圓十錢臺의 市勢가 反

市場六感
株 東新은 百卅圓再割、日産은 七十圓肉迫의 區區▲六日議會부터의 本格的實際戰이 어떠한 波紋을 줄는지? ▲東新에 對한 大觀測이 잇스나 그一은 悲觀 卽時勢는 東新等의 大市勢를 不許케되엿다는것▲그一은 樂觀 卽財界前途는 大勢樂觀이라 東新勢氣의 訂正高가잇스리라는것▲根本的으로 投機를 抑壓하는 世上이라 東新無大市勢論도 頗히 聽할만하임이오▲雜株에서 東新으로 結局人氣가 移行하리라할 도 그럴직한말▲돈는者에 떨어

米 新甫發會後 三十餘丁의 反騰을 示하는 市勢가 二十餘丁의 反落을 告하엿스니 그原因은부엇?▲道般의 昂騰은 潮先一派의 策戰으로 볼수잇고 今回의 反落은 馬越、田中眞의 實活動이라고할수잇다 ▲그러치만 潮先은 大勢에 乘出하엿다 할수잇고 馬越、田中眞은 値頃觀의 一時的策戰이 아닐가한다▲그럼으로 此에서 떠러진다하더라도 그 程度를 可知인즉 참아리 押目買가 得策? ▲大體

본는者에 떨어 主張이다른것지만 東新이 何如間當分은 서원한것이 업을것가트바 果如何?

쌀이란 우리의 日常生活에 不可缺할 食料品이라 그原料가 不足한 今日에 大勢의 反落을 期待함은 無理 ▲그러면 渡米蒐集이 困難할것은 事實인즉 買方이 受米를 決하는 때는 實方의 若佩이 그만큼 잇슬것을 可期▲그런데 朝鮮米는 比較的 潤澤하야 賣方이 저윽이 活躍한다면 渡米蒐集이 無難하리라고 云云▲그래서 阪仁의 糶가 二百四十丁이나 擴大한것이엇다▲그러치만 日本內地의 市勢가 昂騰하는때는 朝鮮米도 追從하고야말 모양。

當限 (先限)
▲賣方 ▲買方

三九〇〇	九九〇〇	三五〇〇	九九〇〇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朝鮮取引所米豆部의 取引員新規申請에 對하야 米豆部取引員組合은 四日午後五時부터 總會를 開하고 協議한結果 金海의組谷仁三郞氏의 新規申請을 異議업시 承認하얏다

朝取新規取引員
組谷仁三郞氏承認

堂島前後場賣買
▲前場=▲賣方=中東側、馬越目

朝鮮米는潤澤
日本內地는品薄

近來 前年의 二百四十丁 內外의 高騰으로 當地의 市勢가 比較的低位의 狀態를 못하고잇다 要하면 日本內地는 品薄이 되어 米不足으로 政府米의 拂下를 請하는터임으로 忽然渡米蒐集의 困難을 免치못하나 그러나 朝鮮은 昨年의 米作이 比較的良作이엇고 日本內地보다도 在米가 그만큼 潤澤한 不振하야 賣方이적어 努力을 加하더라도 渡米의 蒐集이 아니될바 아니다 그러치만 持米側의 態度가 現在의 時勢를 觀望하야 高米價의 時代가 到來하지안코는 實拂하지안는 가 十三圓이란 市勢는 昭和三年以來의 初有高價임이 업고 米價三十三圓臺에는 實物味가잇스나 그러나 容易히 瓦解를 許하지못할모양이니 차아리 押目買의 方針을 取하는것이 得策일것이다

各地正米
▲京城不變 賣方=鐵側、株式側、東京側 ▲後場=▲賣方=鐵側、東京側 田中側

京城不變
實物은 前日과 不變 四等二十九圓 二等白米三十一圓五十錢

仁川不變
實一挺으로 前日과 不變하니 二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 三十一圓三十錢

釜山保合
天候不良으로 新規出廻가 업고 倉物이 二千叺程度 實物로 出하얏슴에 不過하며 市況은 强堅保合인 二等 二十九圓九十錢 一等白米 二十二圓六十錢

大邱不動
淸算은 小戾이나 依然 高價警戒가 强하고 人氣만흠은 取引이 마치안은 狀態를 못하얏다 四等 二十九圓 四十錢 等白米 十二圓十錢

群山底堅
地買氣는 相當히 繼續되여 産地의 頑强으로 갑이 막지안코 市況은 依然底堅하야 四等二十九圓九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十錢

木浦反撥
定期의 頑强으로 依然 日本內地의 買氣가 衰하고 ……

東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金·白·銀·金
買 賣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本(2)三一三六番
振替京城壹五四番
地方注文{代金引換又は先金送料要}

金融 (五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米穀 (五日)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純金價 ◆京城市中金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豆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五日)
◆京城綿糸布市況 ◆京城綿花 ◆輸油沖價 ◆輸押粕沖價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入網 ◆橫濱生糸 ◆大阪砂糖 ◆滿洲商況 ◆日本麥粉市況 ◆大豆特產市況 ◆海外砂糖

[illegible]	

證券 (五日)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現物 ◆朝取短期賣買高 ◆國定代用日步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五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況(單位錢)

[illegible]	